朝鮮日報
夕刊
三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代表電話 本局 二一九一 / 本局 二一九七
振替京城一五九七·五八七八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每日曜日發行)
雜誌朝光(每月一日發行)
同 女性(同上)
同 少年(同上)
同 幼年(同上)

永津部隊의一部、二日 羅店鎭前方을確保!
第二線의敵頑强히抵抗

【上海二日發同盟】二日永津部隊의 一部는 羅店鎭의前敵을 追擊하야 午後三時頃까지 羅店鎭前方 約一里地點을 確保하고 다시 ○○으로 向하야 行動을 開始하엿다

【上海二日發同盟】○○크리크를 渡河하야 强襲한應森部隊右翼은 二日午後 다시 前面의敵에 對하야 猛擊을加하고잇는데 第一線陣地에서 擊破되고 또다시 第二線陣地에서 쫏긴敵은 第二線陣地를 奪回하고저 目下 頑强한抵抗을 繼續하고잇다

敵機十二臺、又復 吳淞附近을空襲
我海軍○○機即時應戰擊退!
敵機三機는遂墜落

【上海二日發同盟】昨二日早朝七時頃敵의 카지스、호크戰鬪機十二機가 吳淞鎭의 上空에 나타나 我陸上部隊에 空襲을 試하려한것을 認定한 我軍艦○○외○○機○機는 ○艦航空兵曹指揮下에 即時勇躍 이를擊滅하고저 出動하야 吳淞上空에서 旭光에번덕기며 壯烈한 空中戰을 演하야 寡勢이면서 巧妙한 戰鬪에依하야 敵機三機를 擊墜시키고 一機를不時着시키여 마침내敵機를擊退하엿다 이戰鬪에서 ○部隊長은機關部에 敵彈을 마젓스나 沈着하게도 揚子江上의 我軍艦○○附近에 不時着하고 其外一機도 또한 操縱網을 切斷되엿스나 이것또한 無事히 ○○艦隊로 歸還하엿다 ○部隊長의 勇敢과沈着에는 全隊를 感嘆케하엿다

敵砲兵陣地를 徹底的爆擊

【上海二日發同盟】第○艦隊報道班午後八時發表 海軍航空隊는 二日午前閘北江灣、大場鎭、方面의敵砲兵陣地에 徹底的爆擊을加하는同時에 夜에入하야 敵의後方에 照明彈을 投下하야 敵의企圖를攪亂하는 爆擊을加하고잇다

香港在留邦人의 避難集結團續え
南支情勢益緊張

【香港二日發同盟】香港在留日本人의 避難集結에 關하야 香港民政長官스우氏는 二日午後水澤總領事와 會見하고 對日方針을 說明하야 日 今回日本飛行機의 廣東爆擊은極度로 支那人의 感情을刺戟하엿는데 今後더욱 豫想되는廣東爆擊으로 支那人의 香港避難者도 益益增加할터인바日本人通行者에 對하야 報復的으로 如何한 危害를 加할지도豫測하기難하다 그때는 勿論 英國政府는 適宜한措置를 取할것이나 如斯한不祥事는可及的事前에 避하기바란다 고述하야 我方의諒解를求하엿다 如何든 여러가지問題가 複雜化하는此際 英國側今回의 處置와 關聯하야 南支의情勢는 今後益緊張되리라고 觀測되고잇다

青島邦人撤退에 大膺總領事聲明

【青島二日發同盟】大鷹青島總領事는 青島居留民總撤退에 當하야 大要左와如한聲明을 發表하엿다 帝國政府는 青島方面의 平和維持를爲하야 不祥事의 再發을絶對防止할 目的으로 마침내 我居留民의 全面的 撤退를講究하게되엿다 右는日本政府로서支那에對한 最大의 好意인同時에 犧牲을 拂하는것이다 更히 支那側에서 日本政府의 眞意를諒解하고日本側의 措置에對應하야 全責任으로써 我方의權益及遺留財産의 保護에 任하야將來帝國政府로서 憂慮치못할事局에 陷入케하지안키를 切望하는바이다

支那事件費 二十五億圓突破

【東京電話同盟】支那事件費는今日까지에 成立된 豫算에 잇서 이미總額五億二千七百萬圓에 達하엿는데 今回새로 二十億圓餘의 事件費를 追加케된結果 이를合算하면 二十五億圓을 突破하게되여 日露戰役臨時軍事費十九億圓에 比較하야 近代戰이 經費에잇서 如何히 大規模的의것인가를 말하고잇다

蘇聯、準備金委員會를改組

【莫斯科三日發同盟】蘇聯聯邦人民委員會는『準備金委員會』를改組하야 人民委員會直屬의『國民金準備局』으로하고 前外國貿易人民委員로젠골쯔氏를 初代局長으로 任命하엿다

我○○部隊敵을砲擊

【上海二日發同盟】浦東에 잇는敵部隊는 三日午前十時二十分約二千米되는對岸으로부터 我總領事館을 目標로 機關銃、小銃射擊을 加하여왓스므로 我○○部隊는 即時 이에 應戰砲擊을加하야 機銃의 猛射를 퍼부어交戰五十分으로 敵을 潰走시켯다 이砲擊으로 敵陣地의 建築物의 一部에 火災를이르켯다

閘北麥根路에大火災

【上海二日發同盟】二日夜當○의砲擊과 爆擊으로 閘北麥根路一帶는 火災를 이르켜 炎炎한火焰이 하늘에더은 凄慘한 光景을呈하여잇다

壯烈한空中戰! 敵機一機를擊墜

【上海二日發同盟】第○艦隊報道班午後八時發表 二日朝부터羅店鎭上空에서 我軍艦○○와 ○○機○機는 敵의 카디스、호크戰鬪機九機와 遭遇、이와壯烈한空中戰을 交하야 其中一機를擊墜하고 殘敵을 驅逐하엿다 我一機도 敵彈에마저 被害를밧고 軍艦○○附近에 着水、搭乘者와飛行機는 모두無事히 收容되엿다

排日紙益世報 終乃廢刊

【天津三日發同盟】大正四年排日運動에 潮流를타고 天津에創刊된以來 終始一貫하야 排日指導에 沒頭하고 잇는 漢字新聞『益世報』는 天津治安維持會로부터 發行을 [illegible] 伊太利租界에 옴기어 依然發行을 繼續하고잇더니 最近에와서는 自發的態度에나와 日本에 海容을빌며 二頁로 減頁하야 겨우命脈을 保全하고잇섯는데 二日 七千六百五十三號를 最終刊으로 廢刊되야 益世報도 玆에 二十二年의 歷史를 最終으로閉鎖되고마럿다

下村司令官도聲明

【青島二日發同盟】下村第○○隊司令官은 二日大要左와如한聲明을 發表하엿다 帝國政府는 가장平和的 企圖를 執하야 모든戰爭의 機緣을 除去할 目的으로 全居留民의 撤退를 命한것이다 이것이 靑島平和에 對하야 帝國이表示할수잇는 最大限度의 好意로沈市長以下 支那側에 對한 信賴를 前提로 비로서 實現될것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 萬若支那側이 帝國의 眞意를 誤解하고 靑島市를 戰亂의 巷으로 化하거나 又는 帝國居留民이 遺留한 財産利權을 조곰이라도 蹂躪할時에는 帝國은 默過할수업슬것이다

豫算委員長 勝正憲氏로決定

【東京電話同盟】衆議院豫算委員長은 民政黨의 勝正憲氏로 決定되엿다

米政府、英國과의 共同動作을回避!
上海休戰案에對한態度決定保留
一般消息通의見解

【華盛頓二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과 헐國務長官은 倫敦駐剳米國大使빙감氏의歸國을 마지하야 極東問題에 對한 英國政府의 方針을聽取하고 愼重히今後의對策을 講究하고잇는데 依然히 不干涉의 方針을 堅持할方針이라고 觀測되는데 英政府方面으로부터 共同動作案을 執拗하게 反覆함에 對하야 米國政府는 오히려 困惑하는 態度이다 消息通은 米國政府가 如斯히 共同動作回避의 態度를 取하고잇는것은 大體로 左와如한 事情에 依한것이라고 觀測하고잇다

一、英政府代辯者는 共同動作이야말로 日本을牽制하는 가장有効한方法이라고 示唆하고잇스나 米國側에서는 英政府의 一般外交政策의 動搖에 疑念을 가지고잇스므로 支那問題에 對하야 英米兩國이 徹底的으로 提携함에는 輿論의 反對를바들 念慮가잇다

一、루즈벨트大統領以下 米國政府當局은 國際問題의 處理는 英國人은 我等米國人보다 靈敏하리라고밋고 英米共同動作을 論하야 意見不一致를 보는것보다도 모든것을 英國에 맷기고 米國政府는 極東問題에 對하야 오로지 深入치안는것이 妥當하다고 하고잇다

一、英國政府는 日支兩國에 全上海로부터 撤退한것을 條件으로 英米佛三國에依한 共同租界의 在留外國人 生命財産保護案을 提示하엿스나 日支兩國政府의 受諾은 豫測할수업는바로 따라서 米國政府는 同問題에 對한 態度決定을 保留하고잇다

以上 米國政府의 態度에는 滿洲事變當時 所謂스팀손政策에 對하야 英國政府가 支持하지아니하엿슴에 對한 不滿이 反映한것이라고 觀測되며 當時國務長官은 英國政府가 스팀손政策을 支持하엿더라면 그後 獨逸政府의 베르사이유體制蹂躪 伊太利政府의 에티오피아征服 西班牙問題에 對한 大大的國際干涉及 今日의 極東危機도 避할수잇섯슬것이라고 맛고잇는模樣이다

地中海情勢漸次險惡化!
國籍不明潛水艦 英給油船을襲擊
水雷發射로死傷七名

【倫敦二日發同盟】英國海軍給油船『우드포드號』(七、○○○噸)는 二日午前 西班牙東海岸을 발렌샤로 向하야 航行하는中 突然 國籍不明한 潛水艦으로부터 水雷發射를바더 二等機關士一名이 慘死하고 船員六名은 負傷하엿다 우드포드號는 多幸히 沈沒은 免하야 발렌샤西方 베니가르로에入港하엿다

地中海에잇서『海賊潛水艦』의 連續的 不法行爲에 英國의輿論은 極度로 激昂되여잇다

海賊潛水艦擊沈命令

【倫敦二日發同盟】英政府는 地中海에 잇서서의『海賊』潛水艦襲擊事件에 鑑하야 二日閣議의 結果 西地中海의 水面에 驅逐艦隊를 增派하기로決定하엿는데 驅逐艦八隻은 右決定에 基하야 近近同方面에 出動할터이다 今後英艦船이 潛水艦으로부터 襲擊되는境遇에는即時이를 追擊擊沈시키라는 命令을 발하엿다한다

"海賊艦"擊沈命令코 地中海艦隊를增强
英最高關係會議決定

【倫敦二日發同盟】英國政府의最高關係會議는 前後二時間에 亘하야 地中海에잇서『海賊』潛水艦의 不法襲擊事件對策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行하엿다 이든外相은 右會議에서 給油船비드포드號事件에 對한 報告가잇서 會議는 極度의 緊張을 呈하엿다 한다 政府는 會議終了後應急措置로 英國艦隊에 對하야 商船을 保護할뿐아니라 襲擊潛水艦을 追跡하야 이를擊沈하라는言의命令을 發한模樣이다 襲擊潛水艦은 專혀伊太利의것이라하는데 政府는 伊政府에 嚴重抗議를 發하기로되엿다한다

【倫敦二日發同盟】英國政府는 二日閣議結果 地中海西部艦隊를增强하기로 決定하고 閣議後左의 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今日閣議에서 地中海의 情勢에 對하야 協議한結果 最近英國船舶에 對한襲擊事件이 頻發함에 鑑하야 地中海西部水面의 艦隊에 驅逐艦勢力을 增强하기로 決定하엿다

英船襲擊은 西國赤色政權所爲
伊各紙의論調!

【羅馬二日發同盟】英國給油船우드포드號(七、○○○噸)擊沈事件에 對하야 伊太利各紙는 二日一齊히 論評을 揭載하엿는데 모도 襲擊潛水艦이 伊太利海軍所屬이라는 臆測을否定하고 西班牙赤色政權이 스스로襲擊事件을 挑發하야 英伊親善關係回復을 阻害하기爲하야서 蹶起하고잇는것이라고論하엿다

英大使事件再次協議

【倫敦二日發同盟】英國政府는二日閣議에서 地中海事態에 對하야 對策을 協議한外 極東情勢에 對하여도 論議하엿는데 휴겟센大使負傷事件에 關한 英政府의 對日通牒에 對하야 아직 帝國政府로부터의 回答이 업기때문에 簡單히 끗을막고 八日定例閣議에서 다시協議하기로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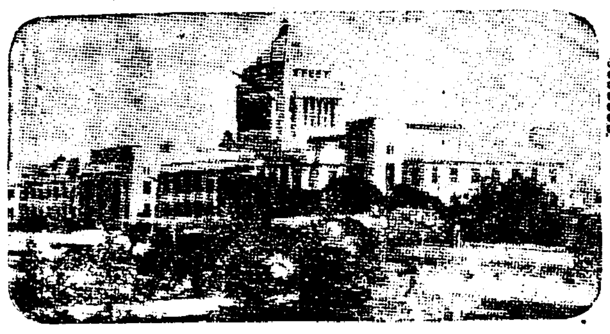
人面鋒

◇第七十二臨時議會開幕。 非常時를 넘어서戰時임으로 二十億若의追加豫算은 재절로 成立될것。
◇公債消化와產業擴張이 엇더한關係로展開될것이냐는 今後의問題。
◇어디로보든지 財政이難局에 잇다는것을잘理解하야 個人生活부터 緊張할時代。
◇中等教育擴充도 六個年으로 促進식히리라고。
◇五年計畫으로 늘려어내이는 初等校出身을收容하랴면 當然한順序。

人事·集會

▲矢嶋杉造氏(朝鮮林業開發會社社長)新任人事次來社
▲伊藤重次郎氏(同理事)同上
▲小林準一郎氏(同理事)同上
▲足立利夫氏(同理事)同上
▲金漢睦氏(遞信書記)朝鮮總督官房文書課兼務人事次來社
▲鄭[illegible]氏(世專齒科醫師)一年間豫定으로 明四日午後二時四十分京城驛發車로渡米人事次來社

戰時體制下의 第七十二議會 今日로遂開幕
貴衆兩院即日成立



【東京電話同盟】二十億四千萬圓에 達하는 支那事件費와 이에伴하는戰時非常時經濟立法을 審議하기 爲한 第七十二臨時議會는 三日召集되여 貴衆兩院이 모두 即日成立되엿다 今回의 臨時議會는 前者의特別議會當時政府가 堅持한事件不擴大、局地解決方針이 支那側의不誠意無反省으로 上海에까지 波及하야 마침내 全面的으로 支那에 戰端을 開하게되엿다 따라서 政府는重大時局에 對處하기 爲하야 戰時體制下에 適應할軍事費及 이에 伴한 非常時經濟立法의協贊을 仰하기 爲하야 召集한것임으로 會期는 겨우 五日間이나 貴衆兩院이 모두 議案의審議에 當하야는 前議會當時보다도 一層擧國一致의 態度를强化하야 政府의對支方針을 支持하야 遺憾업시 戰時議會의 意義를 具現할것이라 고期待한다 (寫眞은 國會議事堂)

貴族院成立

【東京電話同盟】召集日의 貴族院은 三日午前七時七分 毛利元恒子를 先頭로 續續登院하야 緊張味를 보이고出席議員은 三百四名의 多數에 達하야 同九時二分 松平議長以下全議員本議場에 參集

松平議長 第七十二臨時議會는 今日召集되엿다 部屬은 本院規則第六條第二項에 依하야 前回대로 繼續한다 이로써 本院은 成立되엿다 따라서 議長으로부터 此旨政府及 衆議院에 通告한다 고宣告하고 九時七分散會하엿다

衆議院成立

【東京電話同盟】戰時體制下에召集된衆議院은 三日午前十時三十分振鈴과함께 거의全議員이 出席하야 同十時二十五分小山議長開會를宣하야 部長理事는 前回대로 繼續할것이며 部屬은 新布한表에 依하야 決하기로한다 이로써 本院은成立되엿다 此旨政府及 貴族院에 通告한다 고述하야 開會 一分으로서散會하엿다

開院式은 四日午前十一時

【東京電話同盟】第七十二臨時議會는 三日成立되엿스므로 政府는 그言을奏上한結果 四日午前十一時 貴族院에서 開院式을舉行하압신다는言을 三日 吩咐하압시엇다

軍需工業動員法案 貴族院에提出

【東京電話同盟】政府는 臨時議會에 提出할 法律案及豫算에 關係業은 이를貴族院에 提出하야 先議하기로되여 三日當議에서 軍需工業動員法適用에 關한法律案 一件을 貴族院에 提出하기로決定하엿다

今年度豫算總額 五十四億圓

【東京電話同盟】今年度一般歲入出豫算은 第七十、第七十一兩議會에서 成立된것을合하야 總三十四億九百萬圓에 達하는데 今臨時議會에提出될 一般會計追加豫算四千二百萬圓을 合算하면 三十四億五千百萬圓으로되어 이에臨時軍事費特別會計로서 別途로取扱하는 二十億圓을 合計하면 總額實로五十四億五千百萬圓이란 巨額에達하게되엿다 即昨十一年度의 實行豫算二十三億一千七百萬圓에 比하면 겨우 一年에 지나지못한 짧은期間에 我國의 豫算은 倍增하게되는셈이다

時局關係以外는 提案을中止
衆議院態度決定

【東京電話同盟】衆議院에서는 時局에鑑하야 今議會에 잇서서는 議員으로부터의 法律案 建議案 質問趣意書等은 時局에關한것以外에는 그提出을 保留하고 請願等에 對하여서도 同樣으로할수잇는대로 提出을 保留하기로 決定하엿다

事變公債二十億을 今年度內에發行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支那事變에 關한 臨時軍事費를 支辨키 爲하야 臨時議會의 協贊을 經하야 總額二十億圓의 公債를今年度內로 發行할豫定인데 今年度의 公債發行額은 去第七十議會及 第七十一議會에서成立된 豫算만으로도 이미 十三億七千二百萬圓의 巨額에 達하엿스므로 今年새로發行하는 事變公債를 加算하면 今年度의 公債發行額은 實로三十三億圓을 突破하게되엿다 이때문에 政府는 金融業者의 自主的統制에 依하야 銀行、信託、保險等 모든 金融機關을 總動員하야 公債消化에 努力하는一方 資金統制에依하야 事業資金을오로지 軍需工業及 그에關聯을가진 產業에 充當하고저 計劃을進行하고잇는데 今後事變의 發展如何에 依하야는 다시 公債를增發하게되지 아니치못할지도 모르므로 이때문에 高騰物價에 미치는 影響과 그結果는 必然的으로 助長될 經濟統制의 强化及 今後의經濟界에 對해서 極히 重要한 意義를가진것으로 將來의 公債發行及 消化力에 對하야 各方面으로부터 注目된다

不明潛艦에被襲 蘇聯汽船도沈沒

【雅典二日發同盟】蘇聯汽船 므라고이에어號(?)는 二日午後希臘水面에서 國籍不明의 潛水艦의 襲擊을밧고 沈沒當하엿다한다 但 乘船者는 全部救出되엿다

蘇國防公債募集中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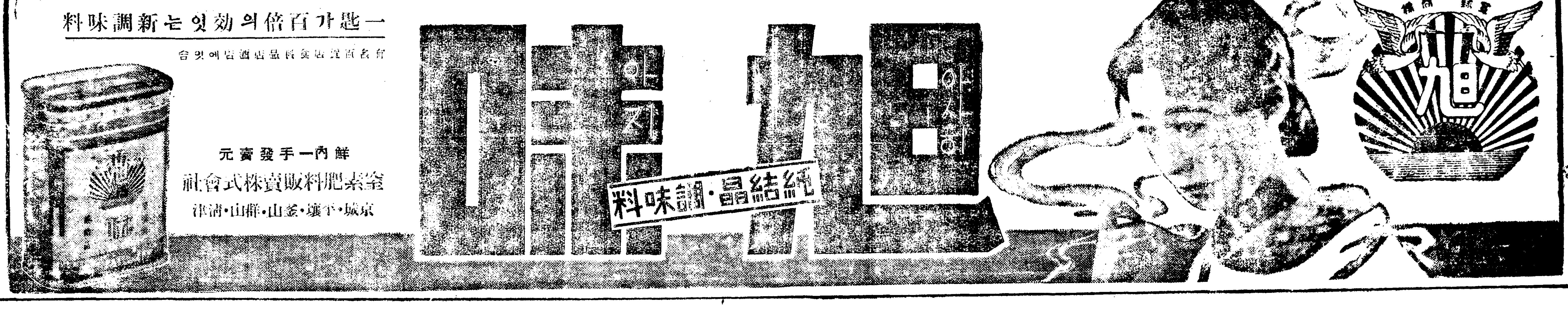
【莫斯科二日發同盟】蘇聯政府는 去七月五日 總額四十億留의 國防公債의 賣出을 開始하엿는데 八月三十一日까지에 應募額四十九億千五百八十萬七千留에 達하엿스므로 政府는 募集을 中止하기로 決定하엿다한다 그런데 國防公債의 內容은如左하다

一、募集金額 四十億留
一、償還期限 二十個年
一、利率 年四分

眞茹無電臺를 徹底的으로爆擊

【上海二日發同盟】第○艦隊報道班午前九時十五分發表 海軍航空隊는 昨二日午後三時四十分 眞茹無電台의爆擊을敢行하엿다

【上海二日發同盟】國民政府가 軍用及對歐米逆宣傳으로使用하던 眞茹無電台에對해 我海軍航空隊는 昨二日爆擊을 敢行하야 이에多大한損害를 與하엿다 大간데 나를中心으로 나란히 서잇는無電台四棟에 順次로爆彈을 投下하엿는데 全彈이모두잘命中한다는 好成績을내엿다 四棟中三棟은 痕跡도업시 倒潰되고 남은一棟도 全然原形을 남기지못할程度로 破壞되엿다



四千餘名이會集 莊重한祈願祭

尹致昊氏以下百餘人이發起 今日朝鮮神宮서擧行

윤치호(尹致昊)씨이하 각계명사일백여명의발기로 상일오전아홉시에 조선신궁에서 국위선양(國威宣揚)무운장구(武運長久)기원제를 성대히거행하엿다 이날의 기원제에는 남총독(南總督)대야(大野)정무총감 소기(小磯)군사령관 심택(深澤)○○사단장, 총독부각국장 갑자(甘蔗)경기도지사 좌백(佐伯)경성부윤이하 관민유력자 례비백여명과 학생, 생도 재향군인등 약사천명이 참렬하야 아지화궁사(阿知和宮司)의 수불(修祓)을 비롯으로 남총독이하 제씨가 옥관을 봉전(玉串奉奠)하고 제원일동이 배례하고서 오전아홉시사십오분에 엄숙히 계식을 마쳣다 (사진은 조선신궁 식장)

同耀會에서 一萬圓을獻金

朝鮮貴族團體의活動

청년귀족으로조직된 시국단체 동요회(同耀會)는 지난팔월이십오일 창립이후 불과십일만인 이일까지 일만원의국방비가 수집되어 상일오전십일시 동회리사장리병길(李丙吉)후작리사 리홍묵(李鴻默)자작, 김호규(金虎圭)자작, 박부양(朴富陽)자작, 한상억(韓相億)남작등오인의간부오인이 남총독(南總督)을 총독부로방문하고 헌납하얏다

이것은 전기간부오인의 맹렬한활동에의하야 오십부구인의귀족의 애국적성에서나온것으로 특히 해량군에 헌금하야달라는것이다 그런데 동회에서는 이것이 위선재일차의헌금으로 장차시국전환에따라 다시제이차헌금의 준비를 공고히하고잇슬뿐아니라 동회사업으로 시국강연, 전선장병에 위문자파견, 위문품송정, 사상병의위문과 조문, 출정군인의 총후봉공등각종사업을 비롯하야 무운장구와 동양평화의 기원제등을 수시로 해할계획이라한다

中和郡下에腸窒扶斯

【中和】 중화면에는 요사이 장질부사가 류행되여 벌서 사망자가 수명에 달하며 지금 환자가 각처에서 발생중인데 중화경찰서는방역에 노력하고잇다

二萬餘圓거더먹고 歸鄕하든支那請負業者

各處宣教師들의被害莫大 船便기다리다西署에被逮

일지사변을핑게로 고향으로도라가면서 사기수단으로 한몫잡아가지고 달아나랴다가 경찰에 붓들린지나인 청부업자=시내서소문정(西小門町) 칠십팔번지거주청부업지나인전조기(田兆基)(..)는 시내죽첨정(竹添町)이정목칠십일번지 미국인선교사『폴―프레잔』씨로부터 칠천원에 집을지을 청부를맛고공사중에지난 이십오일 계약금일천오백원을바더가지고종적을 감추어버렷든바 이사실을안서대문서에서는 즉시로각지에수배를하야 이자를수사한결과 지난삼십일일 고향으로 도망을하고저 인천으로갓다가 배편이업서 도라가지를못하고 그대로도라와 시내현저정(峴底町)에 그의정부 모카페여급박금숙(朴今淑)(..)의집에 숨어잇는것을 이일오후네시 무난히붓드럿다 취조한결과 이자는 전기『프레잔』씨에게뿐만아니라 양주(楊州)잇는 미국인선교사『원』씨로부터도 교회당건축의청부를마타 일천오백원을횡령하고 이와가튼방법으로 이만여원을 횡령하야 이번참에멀리달라다가붓들린것이라고한다(사진은전조기)

支那人호떡집襲擊한 短刀强盜逮捕

古市町서行人襲擊도自白 本町署서嚴重取調

동대문경찰서관내 두곳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범인을 붓잡으려고 부내각경찰서에서는 가위 경쟁적으로 맹렬한 활동을 하고잇든중에 이일오후 네시에 룡산효창공원(龍山孝昌公園)에서 강도한명이 본정경찰서원에게 붓잡혓다 그범인은 경기도파주군 월롱면(坡州郡月籠面) 출생으로 강도전과이범 사기 절도 (詐欺竊盜)사범 리창옥(李昌玉)(..)이라는 강도상습범인데 그날 본정서형사가 효창공원을 경계하고 잇든중 거동이수상한 전기범인을 붓잡아다가 엄중히 문조한결과지난달이십이일 오후열시에 부내고시정(古市町)큰길에서 통행하는 이십사오세의 청년을 습격하야현금십일원을 강탈도주한 사실과 지난달이십구일밤에 부내신당정(新堂町)지나인 왕모(王某)호떡가가에 다른한명과 가티 드러가서 현금이십륙원을 강탈한사실을 전부자백하엿다한다 그의공범은 충북제천군청풍면(堤川郡淸風面) 읍리(邑里)출생 강도미수전과일범김흥덕(金興德)(..)과 또한명의 짝패가잇다고자백하엿다 한다 이범인은 재작년삼월에 경성형무소에서 강도사건의 징역을 치르고 나와서 그동안 이곳저곳으로 도라다니다가 지난달이십이일밤에 고시정에서 강도질을하고 또그달이십구일밤에는 부내명치정(明治町)에서 단도를사가지고지나인호떡가가에 처음한것이라한다 작년이래 해결되지못하고 잇는부내교남정(橋南町)봉래정(蓬萊町)서소문정(西小門町)등 각처에서 발생한강도사건도 혹은이범인일파의 범행한것이아닌가하야 더욱캐묻는중이라한다

痼疾病悲觀코 結項自殺한男子

【漁大津】 원적울강원도통천군학일면칠보리(江原道通川郡鶴一面七寶里)십오번지에두고 현주소함북어대진 빙고(咸北漁大津氷庫)에둔박정순(朴正淳)은일즉부터간질병으로 고생하야오든바 최근에와서는 발작의도수가더하다가 마침내 자기의불행을 탄식한남어 변경사를 실시하기로되엇다

補助金은全然杜絶 農場을抵當起債

起債는밋숀회總會의決議 崇實三校의財政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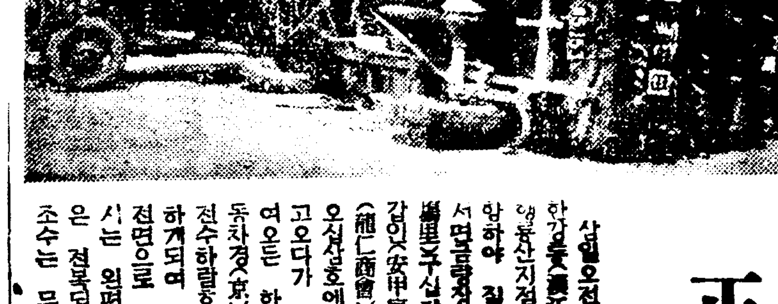
【平壤】 평양부내 신양리(新陽里) 숭실전문학교(崇專)를필두로 숭실학교(崇中) 숭의녀학교(崇義) 등세학교에서 인계문제로파란중첩해 왓섯고 "뉴―욕"의 지전도국에서는 인계에대한 하등의 소식도업시 이학기개교식을거행햇는데 숭전당국에서는인계문제보다도 당면한경비문제로 큰고통을 당하게되여 일전긴급소집되엿든 리사회에서도 학교재산을 저당하고 기채를해서아프로 경영할것을 결의하는동시에 기채위원 세명을 선거햇다 함은 기보와갓거니와 숭전경영자금은 "피초벌절취" 라는명목하에서 매년만불(弗)갓가운보조가과거 십오륙년간을 계속하여 미국각교회에서 송금되여왓다 그러나 밋숀계학교문제가 이러나자 미국에서는 전연"피초벌절취"를보내지안키때문에 학교경영은 극히곤경에 빠젓고이 때문에 학교당국자와 의사회에서는 이경비문제를 중심으로수십차의 협의를 거듭한결과 그 학교유일재원이며 학교재산인대동군신하동농장(大同郡新河洞農場)을 저당하여 기채를 하는안을 발견한터이나 이기채문제는 전번에열리엇든 북장로파밋숀회총회석상에서 벌서중대토의를한후 기채안을 승인까지 한터이어서 지금에와서 기채로학교경비를 보충하는 일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주목할필요도업고 오로지 밋숀회총회의결의를 그대로리행할뿐이라한다 그리고 팔월중에 삼천오백원의 송금이잇섯다는것도 "피초벌절취"중을 송금되여온것이아니라 이것보다는 전연무관계인데 보조금이란춘이래 한푼이업섯슬뿐아니라 아프로도 송금이업슬것은 사실이므로 숭전의운명은 실로풍전등화의감이심각해지는터이며 과거삼십여년의 찬연한력사를가진 이학교전도를 통곡하고십게된다

이와가티 숭실전문학교의 보조비가 아조끈허지어 금년도부터 기채를해가지고 교수의봉급을 지출하여왓고 아프로도기채로 학교경영을 계속해간다는 비장한 결의를 리사회에서 결정햇는데 숭실학교(崇中) 숭의(崇義)의 량교도 역시매년 금년에는 보조금을 바더왓는데 삼,사천원의보조금이 신입생모집을 하지못햇기때문에경비의부족은 더욱 심각하고잇스나 역시미국본국에서의 보조금은 아주그길이끈허지고 마련숭전보다 그들이 전용뿐 꼭가튼 우울상태에 봉착되재로 이학기개교를 보앗스나 오로지 십오일부터 뉴―욕에서 개최되는 지외전도국총회석상에서인계문제가 어떠케 처리될지그결과를 기다리거니와 여기서 중대관심을 가지고 오로지조흔회보가잇기를 기다릴뿐이다

校舍、基地備品까지 全部無償引繼

宣教會經營學校의模範校가된 洋洋!順安義明校

【平壤】 안식교파(安息敎派)에서 경영하든 순안(順安)사립의명학교(義明學校)에서는 학교경영문제가 평양"밋숀스쿨"동양으로 말성이 만허섯스나 설립자"어파―크"씨의 동그럼의견으로학교경영을 무조건으로 양도할뿐아니라 교사(校舍)비품(備品)전부도무료로 대여하고 그학교교육과 안식교선교사를 가입한리사회를 조직하여 그리사회에서 학교를 경영하기로되여 그동안의 분규도일소해버렷다 아프로학교는 결원으로 되여잇는 교장을 그학교의교유였든리경일씨가동반 도학무과를 방문하고 정식으로 도학무과에신청햇섯는데 이일에는전교장 어파―크씨와 리경일(李庚逸)씨로 리사회에서선 속히 인가를 교부하도록 진정한바 잇섯슴으로 도당국으로서도 될수잇는대로 속히 인가를 하겟다는 약속을햇다



트럭과택시 正面衝突

意外로兩名이輕傷

상일오전열한시이십분경 부내 한강통(漢江通)룡산지정압네거리에서 시내를향하야 질주하여오든 룡인군수서면금량장리(龍仁郡水徐面金良場里)구십칠번지에사는 운전수안갑인(安甲寅)(二)이가 룡인상회(龍仁商會)의트럭경(京)오천일백오십삼호에 장작을만재하야가지고오다가 그반대편에서 질주하여오든 한강통십일번지 내외자동차경(京)구천구십오호택시 운전수하람호(河覽鎬)(二)와 충돌하게되여 택시의측면을 트럭의 전면으로 바더치게 되여서 택시는 왼편이 다부서지고 트럭은 전복되엿다 트럭운전수와그조수는 무사히기여나왓스나 택시운전수와 승객이상각지대내사진관(大內寫眞館)에사는문현관용(門脇寬雄)은부상을 밧고철도병원에가서 응급치료를 바든바두사람이다 머리와 팔다리에 일주일이면 전치될기적이경상을 밧게되엿다 (사진은충돌현장)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 晴 一時曇

昨日最高	二八度四
同 最低	一九度一
今朝最低	一四度九
今日正午	二七度七

허튼수작조심하라!

造言蜚語한"黃○佛伊" 懲役一年判決 公州地方…

공주지방법원대전지청(公州地方法院大田支廳)에서는 경상북도 의성군(慶北義城郡)에본적을두고 일정한주소가 업시도라다니는 황○불이(黃○佛伊)(..)에게 류언비어(流言蜚語)죄로 이일징역일년의판결을 언도하엿다 피고는이번지나사변에관하야 황군에불리한 류언비어를조작하야 각지로 전파하고 도라다니다가 대전경찰서에검거되어 그와가튼판결을 바든것인데 이것이 지나사변발발이후처음의판결이다

大邱서는十個月

한명은四個月禁錮

【大邱】 금번사변돌발이래 최초의 류언비어(流言蜚語)죄로 기소된자에대한 정식공판이 지난삼십일 대구지방법원에서열려 륙군형법에 의하여 금고(禁錮)십개월과 륙개월의 구형이잇섯다함은 본보에기도로바어니와 그판결언도는 지난이일 동법원에서 강릉(江陵)재판장으로부터 윤봉조(尹奉祚)(..)에 금고십개월 조호정(趙鎬政)(..)에 금고사개월의 판결언도가잇섯다고한다

東亞참기름 開城東亞製油所

家畜市場十五週年記念大市

경성부영 가축시장(京城府營家畜市場)에서는 금년이 창립십오주년이므로 오는십사일 기념대시를 성대히 열게되엿다 동시장은 전조선굴지의 대시장으로연액오백만원의 거래가잇고금회의 기념시에는 상당히 소와도야지가 만하나오리라고 관측된다

工事場에쇠도적

건축공사장으로 도라다니며쇠몽치멈은무리 이른날새벽세시경 경성부청압 거리를 손구루마에 철근을 갓득실고 땅을훔쳐 니며가는 두사람을 종로서원이발견, 취조한결과 경남 하동군량포면 박달리(河東郡良浦面朴達里) 황남석(黃南錫)(..)외 한사람으로 그들은 경성부청 증축공사장에 드러가 철근이백여원어치를 훔쳐낸것을 비롯하야 시내각처공사장에서 만흔절도를 해온혐의가잇서엄중취조중이다

殘暑의八月下旬

雄基를除하고大概平年以上 仁川觀測所發表氣象概況

【仁川】 팔월이십일일부터 삼십일일까지에 조선기상에 대하야 인천관측소의 발표를보면 전순(前旬)과가티고기압은 본방남동양상(洋上)에 체류하야 그세력이 조선에까지 파지여잇고 북지방면에는 저기압이 잇서 조선은 대체로 청천(晴天)을계속하엿스나 간간흐리엿고 중부이북은 간간히 취우가 잇섯스며 이십삼일에는 남부서측에는 국부적(局部的)호우가잇섯다 순말은 만주(滿洲)에 고기압이발달하야 북조선은 기압의골작이가되야 연일강우가 잇섯다 그리고고기압이 동이(東移)하자우역(雨域)도남으로 이동하야호남(湖南)을 위시하야 각지에취우성의호우가잇섯다 그리하야 우량은원산(元山)에서삼백"미리"이상을초과하엿고 일반으로는 평년보다적엇스며 기온(氣溫)은웅기(雄基)를제하고는 대개평년이상으로되고 일조률(日照率)은 사십내지칠십퍼센트(%)에 일우운고도 잇서 잔서(殘暑)는 심하얏스며 당순의우량과 기온의 평년비교표는 다음과갓다한다

八月下旬各地雨量及氣溫比較表

	雨量	平均氣溫
▲濟州	三九·九미리(二·八미리多)	二五·九度(○·五度高)
▲木浦	三六·八〃(八·四〃小)	二六·六〃(一·一〃高)
▲釜山	三·三〃(三六·六〃小)	二六·七〃(一·六〃高)
▲全州	七六·八〃(三五·七〃小)	二六·八〃(一·八〃高)
▲大邱	三九·八〃(三五·〇〃小)	二六·八〃(一·八〃高)
▲秋風嶺	六四·九〃	二五·九〃
▲仁川	三三·二〃(三·五〃小)	二五·九〃(二·〇〃高)
▲京城	六三·三〃(一三·〇〃小)	二五·七〃(一·五〃高)
▲江陵	九六·四〃(一八·八〃小)	二五·五〃(二·四〃高)
▲平壤	一〇八·五〃(四一·七〃多)	二四·二〃(一·二〃高)
▲元山	三〇二·〇〃(一四四·七〃多)	二三·三〃(一·二〃高)
▲新義州	四四·二〃(八九·七〃小)	二五·九〃(三·三〃高)
▲城津	六八·二〃(四九·七〃多)	二三·二〃(〇·八〃高)
▲中江鎭	九八·六〃(三·九〃小)	二〇·六〃(〇·七〃高)
▲雄基	一三〇·七〃(三八·〇〃小)	二〇·〇〃(〇·五〃低)

南支寄港各船 船客檢便實施

虎列剌患者判明으로

기보=삼십일문사(門司)에입항한미국기선『마닐라』환에선객한명의의사호열자(虎列剌)환자가 발생하야 대소동을이르켯는바문사검역소(檢疫所)에서는 분변(糞便)검사를한결과 진성호열자로판명되엇스므로 즉시정선명령을나리는동시에 환자는검역소 격리변실에 수용하얏스며 선객전원의분변을 검사중이다 이정선명령은 약삼사차선객의 분변검사를행하야 아모병균이 보이지안해야만 해제하는것이라한다 그리고 인천(仁川)、부산(釜山)진남포(鎭南浦)세항구에서는 호렬자 류행지로 지정된 향항(香港)으로부터 드러오는 기선에대하야 일반선객과 선원의분변…

近代올림픽創始者 쿠벨탄男逝去

【제네바一日發同盟】 근대올림픽창시자 "피엘드·쿠벨탄"남작은 이일저녁 제네바공원을산책하는중에 돌연 뇌일혈로 졸도하야 장서하엿다 향년은 칠십오세

스포―츠欄

陸上審判은日本에 國際陸聯에提議

日本陸上競技聯盟昭和十二年度第二次臨時總會는 지난二十八日午後七時부터 日本靑年館內에서열고 一九四〇年東京大會陸上競技審判問題에 對하야서는 這間國際陸上競技聯盟理事會에서 陸上審判은 日本에게 一任하지안코 國際陸聯에서 行한다는報道가잇섯는데 이에對하야陸聯에서는 올림픽大會가 日本에서열리는만큼 陸上競技審判은 日本人에依하야 一切審判할것이라는데意見이一致케되여 이뜻을國際陸聯에게 極力으로主張할方針을決定한後散會하엿다하나

공의와 인애

어느 국가와 민족에게던지 녜로부터 규례와 법도가 잇섯스니 그런가운데도 녯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저정된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묵시로 기록된것이 잇섯스니 즉 「모세」가 기록한 五경 가운데 포함되여 잇다 그중 「레위기」라는 책에 기록된것이 만타 이제 그 몃가지를 말하자면 「레위기」책 十九장 九―十八절、三十二―三十七절등에 보면 빈민을 구호할것과 남의 권리를 보장할것과 공정한 재판을 할것과 이웃을 사랑할것과 늙은이를 존경할것과 이방사람을 학대하지 말것과 무슨 일에나 공정할것 등을 가르첫다 이는 그 기록한 률례중에 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각양 요긴한 조목이 만타마는 다 이몃가지 속에 포함될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예수」의 률례 정신이 대개 어떠한것을 알것이다

이것을 총합하야 보면 공의와 인애이다 이 두가지는 서로 표리가 되여서 떠나지 못할것이다 어떤 민족이나 개인으로 본다면 공의를 인애보다 먼저 하는자도 잇고 인애를 공의보다 먼저하는자도 잇어서 그 우렬이 잇다 하겟으나 지금 우리의 표준은 어느것을 먼저로 할것 업시 공의와 인애를 병행하게 할것이다 맹자 말슴에도 인의가 잇을 따롬이라 하엿다

第84回生徒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 (期後)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學則要三錢切手
◉最近校舍新築大擴張(元貫鐵簿記專修學院改稱)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番地(電本五、三六〇番)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晝夜 ◉學則要三錢切手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文檢入學受驗準備)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小兒科專門 醫學博士 方斗翰
京城府齋洞町四街路 (入院隨意)
電光二三五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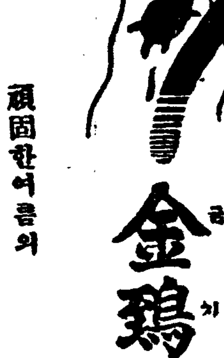
旋盤、ボールバン
電氣ドリール
グラインダー
鐵工用工具一式
鐵管 バルブ、コック、パッキング
ボルトナット糸捻
自動車工業材料
カタログ進呈ス御申込ヲ乞フ
京城府北米倉町四十二番地
原田商會
電話本局②長{二三九一、二五四三}番
振替口座京城一六八四番

모양잇고 튼튼한 별표고무신
별
별표고무신
中央商工株式會社

더위로 弱해진 몸을 그대로는 二百十日을넘기지못합니다! 榮養의非常召集을할時季입니다。시원한칼피스에흠뻑드러잇는 榮養이면어떠한 胃腸이라도잘 밧습니다
滋强飲料는 健康케하고・胃腸을整하는
榮養 召集
カルピス

補血·强壯·强精에는
판토크린
(花鹿茸精)
元賣發入輸直
共生藥業株式會社
京城鐘路
電話光化門{長七四五 二五四〇}
振替京城二二〇〇二番

尤先! 三十錢짜리를 試用하시라
학질 瘧疾과 자라배 鼈腹은 금계환 金鷄丸으로全快
頑固한어름의 ▽……感氣에도特效
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京城府 …
有名藥店
定價 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



世界의자랑

▲天下의補藥中 百補丸 갓치 몸에利한藥이 다시업습니다

▲陽氣·精神·筋骨 胃腸等이 모다 조와지고 食事가 倍加됨니다

▲病弱人은 疾病治療劑로

▲氣血虛弱人은 補血强壯劑로

▲陽氣不足人은 精力補給劑로

▲中年人은 老衰防止、更少年劑로

▲藥効信用 天下第一!

●高貴 호루몬强壯劑

一、近來盛히 떠드는 호루몬劑도 漢方에서는 벌서 一千餘年前부터 使用해오는것입니다 百補丸에 含有한 호루몬은 實로 高貴玄妙한性質이 잇습니다

二、百補丸은 實로 累試累驗의 名藥인故로 絕對 自身을 가지고 藥効를 天下에 推奬함니다

三、元氣不足、陽氣不足、胃腸衰弱、消化不良、神經衰弱、不眠症、貧血症、肺弱、疲勞、盜汗、營養障碍等에는 唯一한 多元性治療强壯劑임니다 病과 虛弱으로 걱정말고 只今 곳 百補丸을 服用하시요

虛弱이過度하면 百藥이無効한法

暴暑에 시달닌몸을곳 百補丸으로 補하시요

不治의難病도早老와短命도 조그마한虛弱으로부터始作됩니다

一、사람이 第一늙고 弱해지는때는 一年中 여름철입니다 더위로因하야 元陽이衰退하고 胃腸이弱해지고 元氣와 基血이俱虛된몸을 그대로두면 當場에는 別일이업는것 가트나 冬節이되면 치위에對한 身體抵抗力이 不足하고 弱해저서 感氣 傷寒 몸살等에 걸니기쉽고 이 虛弱한틈을타서 못된 病魔들이 肺臟 心臟等 五臟六腑에侵犯하야 各種重病을 이르킴으로 決局 虛弱이 過度한사람은 不治의難病이되고맙니다 早老와短命도 조고마한 虛弱症勢로 始作됩니다 그럼으로

二、服藥의 最好期인 只今、百補丸으로 貴下의몸을 튼튼히 補하시와 病魔의敗北者가되지말고 萬人을壓倒하는 健康者가 되시요、百補丸은 身體各部의 抵抗力을 强化하고 모든虛弱과 老衰症을防止하고 氣血과 元陽을 增進식히는作用이 神妙卓越함으로 철마다 百補丸一劑식만 服用하시면 참말로 無病健康 씩씩한一生을 지낼수잇습니다

特許第二八二二八號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長生仙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illegible]無病健康長壽劑

最大의名藥이기때문에
最大의賞讚을밧는다

漢方醫藥界의 最高權威시요 李王職大宮各位의健康을 擔任하고게신 現李王職典醫 洪在㷜先生께서는 누구보다도 百補丸의効力과 眞價를 잘아심으로 同胞에게만히 推奬하시며 이와가치古今東西最良劑라고 칭찬하심니다

葛玄眞人百補丸
古今東西最良劑
李王職典醫 洪在㷜

生男生女天下待望의 世界的婦人名藥

안해의 無病健康을 爲하야 家庭의 團欒을爲하야 슬하의 子女를 엇기爲하야 이약을貴下婦人께 一劑식사드리시요

婦人百補丸은 女子의經度不調와 赤白帶下症、冷病、不姙症、頭痛、腰痛、眩氣、神經衰弱、히스테리、子宮惡臭、下腹痛、氣血俱虛、手足厥冷、顏色蒼白、消化不良、不眠症等 모든婦人의 子宮病을 곳치고 補氣補血、幾宮胞胎케하는 秘藥입니다、無子多病한婦人과 夫婦和合을모르는婦人은 곳 쓰시요

調經·胞胎·補血强壯

婦人百補丸

代々孫孫·鉄血子女

藥價 一劑特價七圓

淋疾잇는男便

斷產한지十年된 老婦人이生男

▲婦人百補丸은 斷產한지 十年된 四十七歲의 老婦人이쓰고 胞胎하야 玉童子를 解產한等의 實例가만은 神秘藥材입니다

▲姙娠中의 婦人이쓰면 健康한子女를 낫케되고 產後것이 잘안나는 婦人이쓰면 젓이흔해집니다

◆特히 淋疾잇는 男便을 가진婦人이 이藥을쓰면 淋疾治療와 豫防으로 第一安全합니다

藥價 一劑特價拾圓
重用試拾圓

無料進呈 三劑以上 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께 一劑無代進呈

重要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奬勵館
三、全朝鮮十三道廳商工奬勵館及商品陳列所
四、全朝鮮和信連鎖店
五、三越·藥品部

百補丸의効力은 이러케굉장합니다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衰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 체증 속병等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 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精神이호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服用하여 씩씩한 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됨니다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밝가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다잘補하야 참말完全히 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陽氣가大旺됨니다
一、過飮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絕倫하야 一生을無病健康한몸으로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淋疾도 消滅됨니다

체증을 根治하려면 消化劑를 쓰지말고

健脾强胃劑를쓰시요

●百補丸은 健脾 健胃 作用이 强大함으로 年久체증이 떠러지고 氣血이 旺盛하고 陽氣가 大旺되고 筋骨이 튼튼하여짐으로 一擧兩得이됨니다

●체증에 對하야 一時的 病者의 好感을 주기爲하야 消化劑를 大大的으로 宣傳販賣하는고로도 數多하나 이等消化劑로 체증이 根治되엿다는말은 누구든지 듯지못하엿슬것입니다

●百補丸은 健脾 消滯의 二重作用을하오니 체증 消化不良을 根本的으로 곳치려면 亦是 百補丸을 쓰는것이 第一完全합니다

京城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振替五[illegible]·電話光三三〇番·六三二番

모보 머물고가는 양품점윈도—
시세도따라서 엉거주춤

나달이 빨려서 못견되는 사람도잇고 지리해서 못견되는사람도잇지만 월급쟁이에게 철수갈리는것은 칠색할노릇이라 빼트리기도 합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몸단장은그래도 남에게지지안코 따라가야하는노릇이라 여름양복 모자 와이샤쓰 넥타이들을사노코 겨우숨을 내루어쉬자마자 벌서 가을바람이 원망스럽게 부러와서 철이변하고 맙니다

이슬방울 들건가는 날개가 도친것처름 작그울려간답니다 비상서는 이들의생활을 위협하는데 그나마 여름에쓰든것은 모두 누에 겹칠번듯이 벌서치우고 가을것으로 밧구어가저야할테니 느진가을빗쟁이에게 면살을 조를한이잇더라도 엇더케합니까 위선여러분이 가지서야할 가을 넥타이 와이샤쓰등속의갑시나 살펴노코봅시다.

아무리조흘리더라도 이왕서야할려면 그래도 류행이라는것을 떠날수는 죽어도업습니다. 어디 모두가 십구세기 론돈거리에 울툭거리던 멋쟁이모양으로 회려하고 청단적인 의상에 고혼넥타이를매고 다니는것이아니나 그래도 현대인으로서 류행을떠나서야 어디몸치장할맛이잇서야지요 뿐만아니라 이것은 우중상하고 깨끗하게몸치장을하는 이 한가지처세술로서 업지못할일이며 심하면 그들의 사회적지위가 좌우될때도잇스니하는수업는노릇입니다 각설……

금년가을 넥타이류행은 대체로 온건착실한것을 주로합니다 착가라안고 비롯이업시 온건하면서도 명랑해보이는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봄과그다지 큰변동이업스나 일부에서는 현하정세를감안히상응한것이잇스니 검은바닥에 일장기를그린것이라던지 군용비행기를 그린것도 잇긴하나 이것은 예사이너ー가시험으로내여노흔것이고 일반적으로수용은적다고합니다.

단조한 일색의줄일속에 그와 아조반대되는빗갈로 가다한모양을너흔것입니다 가령 거문바닥에 힌점을 고르게친것이라던지 하늘빗바닥에 검고가느다란선을 교차시킨것가튼것이 만히쓰입니다. 갑슨금년가을에는 운수제한으로 사입이곤난하야조곰빗싸질것가트나 직축은 현저히오르지는안코 방황하는 편입니다. 아마조곰더가을이 기퍼지면입항내외의 등귀는 면치못할것갓습니다 보통살만한것이 이원칠팔십전이며 최신떡여서 런던제품으로 십칠원좌우의 정도입니다.

그다음 와이샤쓰는 금년봄부터 쓰이고잇던 캇타샤쓰가 아직도 쓰이며 특수한 사람외에는 대개들 제자리에 칼라가아조부튼것을 만히쓰는데 빗갈이 한빗으로 된것 회색이나 하눌빗이 제일만히쓰이며 줄진것은 줄과 줄사이가 넓은것이 류행하게되엿습니다. 와이샤쓰는 대개삼원오십전정도로 아주 고급품에속하는것이 만히 쓰이며포플린나 벰베르크류는지나수출의불가능으로조금 협해젓스나 운수관계로 아모런가격의 변동을보지못하고잇습니다.

그밧게 카후스단추나 넥타이핀가튼것은 귀금속류에 속한것이므로 금번림시증세의 영향을 바더 이할가량빗싸젓습니다

家庭

『공기』간즈메로 공기를정하게해
『이온』의조절로숨을쉴데파ー트
냉방장치로는불완전

혹독한 더위에 찌는듯한사마실속에서 일하고잇는 월급쟁이계급을위하야 냉방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니 바다가의 공기와가튼 공기통조림을 노나주어야겟다고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가잇습니다

근래에는 뻴딩이라고해서 수만흔 고층건물이 생겨남을따라 거기대한 위생에 큰관심을 가지게되엿습니다.

오피스 데파ー트 극장 가튼데는 의례히 냉방장치를 하는것은 조흔경향들입니다. 그러나 다만냉방장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기의쾌감대(快感帶)란것은 다만온도의 저하만이 안이고습기의정화(淨化)와 공기이온을 조절하지안호면 리상적인 쾌감대라고할수업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바다가이나 산이나공원이 위생에조타는것은 결국 이온이라는공기가잇는까닭입니다. 그러나 여름이더워지면모다 냉방장치만을숭상하고 이것을 너무지나치게함으로서 이속에서 일하는월급쟁이들은 흔히 냉방병이라는여러가지병이 생기게됩니다 이병가운데는 호흡기병과 부인병이 만습니다. 그뿐아니라 어딘지모르게 불쾌하며 오래동안 여기에잇다가 급히온도가 다른곳에나가면 신진대사에 방해가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케과도한 냉방과통풍은 신체에해로우니 단연폐지하고 이대신으로 이온과오손을너어서 쓰는것이 조흐리라고합니다.

가령 레를들면 여러사람들이 한데모혀잇스면 어즈럽고 구역이나는일이잇지안습니까 이것은 종래에 탄산까스의 중독으로알고잇섯습니다 그러나 사실은그런것이아니고 공기가운데잇는푸라스 마이너스이온의 적고만흔데따라서 이러나는현상입니다. 즉 푸라스이온이만허지고 마이너스이온이 적어지면 그러케구역이나고 어지러워지는것입니다.

아희들이교실에서 고단해하는것도 결국은이러한 마이너스이온이적어지는까닭에 이러나는것을 알게되엿습니다

이 마이너스이온이란것은 아침저녁의시간과 장소와날세에따라서 달너지므로 기천가튼것이날세에따라서심하기도하고덜하기도하는것이모다 이온의관게입니다

그뿐아니라 밤에잘때 창문을 닷처노흐면 답답해서서 잠이잘안오는것도 이온관게입니다 이와가치 마이너스이온이란것은사람몸에 큰작용을하며 또한오손은 공기를알게하고 쾌감을주는것이므로 기온저하(氣溫低下)와 동시에 이온 오손을적당하게방속에 가저오도록 하는것이중대한문제입니다

이러한공기는 해변에서 가저온공기와 조곰다름업는 힘을 가젓슴으로 이것은 다시말하면바다가에서 가저오는 공기통조림이라고도 말할수잇습니다 이것은 전기분해법에 따라서 바다가이 [illegible] 수잇게 되엿슴으로 아프로는뻴딩속에서 생활하는 월급쟁이의 위생에 크다란 광명을 가저오리라고합니다.

—사진은 뉴ー욕의마천루

무역풍

지옥그리는 에스키모사람

아라스카의 산속에 돌아단이며 오래동안 그리스도교 선교를하고잇던 앙카렛지 교회의전도부장 세센트、로렌드목사는여러선교사[illegible] 다음과가튼 자미잇는 이야기를하얏답니다

여러분이 에쓰키모인에게 설교할때는결코 지옥이야기를하지마는것이조습니다.

그것은 유익하다기보담 큰해를 가저올것입니다.

웨그러냐하면 지옥에는 불덩어리가 굴너단이고 불갓튼시내가 흐른다는이야기는 에쓰키모인에게 무서운인상으고사하고 치운데 떠는그들은그들의 제일소원하는 지옥엘가서 하로라도 속히치운고생을 면해보겟다고 접거워할터이니 지옥을가지안코 천국을가기위하야 예수교를밋는다면 그들은 예수교가 그들을 정말답분데로 인도하는것이라고생각할것이다.

자모을가

밧갓양반의 가을철모자! 선량하신 주부여러분 여기대한 관심을 가저보섯습니까

양복과모자와 구두ー남편의의복에대한 관심은 주부의 가장큰임무의 한가지이기도합니다. 춘하추동을 통하야 모자라는것은 대체로 경쾌한것이 조습니다.

금년가을류행으로는 스포ー티한것이 중심이 되여잇습니다. 이가을의 소프트의 빗갈은고동색과 회색이 여전히 유행합니다

갑슨 대체로 상등품은 고동색이만코 십원이하에 나려가서 회색이만습니다.

회색비츤 어느해라도 가을빗갈로 아조 정해둔것이며 거기에 현하의 시국을반영하는 빗갈입니다.

모양은 소프트와소프트형(型)의 모자선이자대체로 널버젓스며 리본폭은 조바젓습니다. 모자노피는 조금식 나저지는것갓습니다.

이것이즉 경쾌(輕快)한 기분을살이는 라인이라고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류행의첨단을것고잇는 남자모자는 소위누비모자입니다.

작년가을부터 류행하기시작하서 금년여름에는 엄청나게만히들쓰게되엿습니다.

이 누비모자의 가음은 라샤로서 그우에 누비질바눌자욱이 드러나게만는것이 류행합니다. 갑슨대개 삼원좌우로서 가장대중적입니다

금년모자의 류행게 특색인소위『핑괴』라는것은 이 누비모자가 제일특색을 잘나타낸것인데 금년가을에는 노소의구별이업시 엄청나게만히쓰이게 될것입니다.

빗갈은 보통소프트와 맛찬가지로 고동색이나 회색으로서물가가빗싸젓다고는하나 웬일인지 남자모자는 오르지안코 명년봄세나시세의 큰변동이 잇슬것갓습니다.

우리차지

개미

(글쓴사람 장병갑)

자동차는 길을보고
가고 배는 지남철을
보고간다。
개미야 너른땅바닥,
이만은 모래우에서 무
엇을보고 길을찻느냐。
벌서 해가 기우럿지만
어둡기전에 네집을 차
저가겟지。

놀납게발달된 안과정형수술
눈모양납분것은 뒷이든지고처저

魚澈

근자에 안과학의발달과따려서 수술이발달되고 진보되여 미용상중요한지위를 가지고잇는 눈에대하야 여러가지정형수술이 시행되고잇는데 그중에중요한것몃가지를 소개하겟습니다

一、적은눈을크게 하는수술

눈이 적다는것을 두가지로 해석할수잇스니 하나는 안구(眼球)자체가적어서 눈전체가 작은경우와 둘재는 안구의크기는 보통이나 윗눈가죽(上眼瞼)이 아래로처저서 두눈이 짝재기로되경우입니다. 첫재 안구가적어지는원인은 선천적으로 소안구증(小眼球症)이잇는 경우와 후천적으로 병으로인하야 안구로(眼球癆)를이르켜서 눈알이 적어진경우가 잇스니 이것은 의안(義眼)즉맨든눈을 해박어서 외관상 보통눈처럼 보히도록 할수잇는것입니다

그다음은 눈가죽이아래로 처저내려와서 (이것의원인은 원체 여러가지원인으로 약합니다) 적어진눈(瞼裂狹小)은 상안경(上眼瞼)피부에 적당한정형수술을 시행하면 아모흔적도남기지아니하고 눈이크게되는것입니다

一、눈가죽을쌍거풀지게하는수술

한편눈은 쌍거풀이 저서잇스나 다른편이 외겹으로 되여잇슬경우 더욱이 묘령부인에잇서서 미용상양편눈가죽을갓게하기위하야 외겹눈을 쌍거풀지도록 하는수술인데 미용상의의이가 상당한것입니다.

一、화상(火傷)등이 원인되여 눈가죽이 거죽으로뒤지퍼진경우에(眼瞼外翻症)외관상 대단히 보기흉한것이니 이것은 피부를 신체의 다른부분에서 떼여다가 이식(移植)을하든지 또는그외의방법으로 정형수술을할수잇습니다.

一、『도라홈』혹은 그타원인으로 눈가죽이안으로말려드러가서(眼瞼內翻症)외관상흉할뿐아니라 속눈섭(睫毛)이눈알을향하게됨으로게속적으로 눈알을찌르게됩니다이것이 원인이되여 각막염(角膜炎)등이 발생하게되는것은 말려드러간 눈가죽의상하를 물론하고 안검피부의일부를 끈어내고 다시꾀어매는 방법으로 흔적을 남기지아니하고 눈가죽의방향을 바로잡어 놀수잇는것입니다

一、눈두덩이 소복하야보기흉한경우 (眼瞼皮下脂肪過多症)에는 눈두덩속에 너무만흔 지방을 그리어내고 꾀어매는수술이니 지방의 분량에따라서 수술의 정도가 다달릅니다

一、안검지방이 부족하야 눈가죽이 푹꺼진데 행하는 수술이니 동양사람은 일반으로서 양인에 비하야 안검피하에 어느정도의 지방이축적되여 잇는것이 보통인데 질병또는 외상(外傷)이원인이되야 안검의피하지방이 빠저버리는 수가잇습니다. 그러나 신체를 쇠약하게하는 일반적 질환으로안검지방이 빠진것은 신체이 회복함을 따려서 안검지방도회복되는것이 보통이나혹 경우에따라서는 안검지방만 회복이아니되고 푹 꺼진채 그냥잇는수가 잇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검피하에다가신체의다른 분분에서 지방이나근육일부를 떼여다가 이식하는 방법과또 모종의약품을 주사하야 꺼진눈가죽이불룩하야지도록 할수잇는 수술입니다.

一、사팔눈(斜視眼)

눈알의 위치가 제자리에잇지아니하고 밧갓쪽으로치우친경우(外斜視眼)와 안쪽으로 치우친경우(內斜視眼)가 잇는데 이두가지는 지금까지 기록한중에서 미용상 제일 흉한증상이라 하겟습니다 이사시안은 내외사시를 물론하고 사시수술을 시행하야 안구의위치를 바로잡어노호면 그효과는거이 백퍼ー센트이며 또 단시일에 그효과를 내일수잇는것입니다

一、각막백반(角膜白斑)

각막염을 중하게겨꺼서각막에 구녁이뚤리며 홍채탈출(虹彩脫出)이된후 시일이지내며는 거문자위가 하야케두껍게 떠퍼바리는 일이잇는데 이것은 점묵술(點墨術)이라는 수술을 시행하면 외관상성한 군과갓게 보히도록할수잇스나 시력의 완전회복은 불가능한겁니다

☆★☆★☆★

내년에는큰물이저
미국과학보급회의천체이변보고

래년에는 이지구우에 큰비가오신답니다.

정감록에 쓰인비결도 안이요 귀신이 꿈에차저와서 이야기하고 간것도안입니다 최근 덴바에서 열린 미국과학보급회에 다음과가튼세가지의 천체이변(天體異變)이 잇슬것이라고 보고되엿습니다.

이보고에의하면 명년에는 이지구우에 아직까지 보지못하던 큰비가나리며 물난리를 이르킬터이라고 합니다.

(가) 목성(木星)에 크다란 흑점(黑點)이 새로나타난까닭에

(나) 화성의표면에도 이상한점이잇고

(다) 태양의흑점이 이때까지에는업섯던만큼 만허진것

이러한세가지의 원인가운데 지구에 제일큰영향을가저다주는것은 태양의흑점이 만허진것으로 현재에도 벌서 천체관측을하기시작한뒤에 처음이라고 할수잇도록 그수효가 만허젓다고합니다 더욱이것은 날마다 불고만잇습니다. 이흑점의증가는당연히 래년정월부터 삼월까지에 지구우에 큰비가오서서 무선전신전화에 큰고장이이러나며 홍수가날것이라고합니다.

(사진은 동경중앙기상대)

★☆★☆★☆

가정의학

식후얼골이붉어

『문』밥만먹으면 얼골이 붉어저오며 마치 술먹은사람과갓사오니 무슨까닭이오며 치료법을 가르처주옵소서 보통시에도 갈금 열이나며 붉어집니다 (나원정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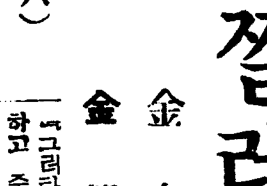
『답』 밥을먹은뒤에로 그러타고생각할수는업습니다 체질이 자극성에예민한 관계일것이오니 며운음식을 먹지말고 매운것을금할거십니다 이러것은 신경을자극하기쉬운연고입니다 (普惠病院長 朴秉來)

소화불량

【문】삼십이세의남자이온데십이세때부터 소화가 불량하오며 식후삼십분만 거려댕기면 명치끗치아픔니다 먹은것은 내리지안사와 갑갑하게됩니다 그리고 놀드림이끈치지안습니다 신체는허약하오며 소변은 뜨물과갓치탁합니다 (平山一讀者)

【답】이십여년전부터 소화가 불량하엿다하니 단순한지상처방으로는 낫기어려울소이다 소화불량에도 여러가지증세가잇서 처방도일정치안습니다 한번철저히 위액(胃液)을검사하고 검변(檢便)을하여 원인을규명하야 처방도할수잇습니다 이런경우로도 불충분할때에는 엑쓰광선사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히진단을하여 치료케하시요 가정에서 우선주의할것은 재극성음식물을 금하고 소화되기쉬운 류동식물을 섭취케하십시요 (普惠病院長 朴秉來)

長篇小說



찔레꽃 【114】

金末峰 作
金熊超 畵

적자(赤字)(六)

『아니、놋케나 정말 나이길로 바루가서 그놈은놈의 상파대기를 짓밟아주고올테니』

하고 민수는 근호의 두팔울 힘껏 뿌리첫다.

비쓸하고 근호가 한편으로 쓰러지는통에 쾅ー하고 유리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흔들렷다.

『리군 그러면 나구가티 가세나』

하고 근호는 민수의 뒤를쫏차 어둠속으로 뛰어나갓다.

씽ー하고 부러오는바람이 무딘칼긋처럼 사람들의피부를 수시는듯한 밤거리를 두사람은 잠자고 뚜벅뚜벅 한참걸엇다

오날이 섯달금음이라 길바닥에는 물건을 흥정하여가지고도라가는 사람들로 전차는 거의만원이되고

휘휘지나가는 자동차 속에서도 커ー다란 꾸레미를안은 젊은사람들이 눈에띄엿다

두사람이 종로이정목 교차점까지 이르럿슬때

『리군!치우니 좌우간 우리타고가세나』

하고 근호는 민수의 무쇠가튼 한팔을잡엇다

『자넨 도라가게나 나혼자갓다 올테니』

하고 민수가 근호를도라본다

『근데말야 자네 암만생각해도 싱겁지안나? 글세 무슨권리로 조가를 때려줄테냐말이야 …안그래? 만약에 정순씨가 뛰어나와서 자네에게 항의라도한다면 그얼마나 더창피하겟느냐말야…좀더 냉정히 생각을해보게나』

『…………』

『벌서 정순인 자네에게대해서 아무런관계가 업는여인이아니야? 그런걸…내암만해도 자네하는짓이 쑥스러 허허허』

『그러타 정순은 임이남이다』

하고 중얼거리는 민수는 갑작이 마개를빼낸 공기침(空氣枕)모양으로 전신에 긴장이일시에 탁풀리기시작하엿다 그리고 심장과 페부일체를 우벼내이는듯한 공허를 느끼엇다

정순이가 경구와 사랑을속삭이고만 잇는줄생각하고 질투를느끼든때는 그래도 어데인지일루의 희망이 가슴한구석에서 깜박거리엇겟다 아니 전연 그희망이 사라진다하여도 정순의행복을위하여 지긋이 참아주는자기는 괴로우면서도 어떤 커ー다란자랑을 느끼기도 하엿든것이다

그러나…지금 조만호에게 짓밟혀버린 정순은?…

민수는 차디찬 공기속에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엇다

『너무도 추하다』

그는 견딜수업는 굴욕과학대를 당한때처럼 부르르떨리는 아랫닙술을 아스러지라고 깨물엇다

『리군 조곰잘생각해보게나 것도 말야 아조 십갈세미만의 어린소녀가트면 몰라도 발서이십이칠신념은 여자니까 좀더 자기운명에대해서 비판력이잇슬게아니냐말야…그러니 나는 정말이지 그조가 보다도 외려 『토기시려』

근호가 깜짝놀라리만큼 민수의 목소리는 노팟다 중학생인듯한 지내가는 소년두어이 힐끔 민수를도라본다

갑작이 민수는 홱도라서더니 쪼껴가는 사람모양으로 광화문통을향하여 내닷기시작하엿다。 근호는 어떤불길한 예감에 어깨가 엇숙하여지는것을 느끼면서 그는 걸음을 빨리하여 민수의뒤를쫏차갓다

전차도 타지안흔채 그들이 효자정 숙으로 드러온때는 열두시가 거이되여술무렵이다

근호가 여러스러운얼골로 어리고 꼬창 이야기를 하는도 민수는 다귀찬타는듯이는 조곰전에 깔아노앗든 이부자리속으로 아무러케나 드러가 눈을감엇다

후회에 가까우리만큼 미안한 생각을 느끼면서 근호는 자기방으로 도라왓스나 그는 좀처럼 자리에 누을생각도 하지안코 민수의방기척을 살피엿다。

경구는 이저녁에도 식당에 내려오지안햇다 어제 그저께날아츰까지 고시러니 식탁에 나오지안는 경구의일을 생각하니 정순은맘속이 거북하여젓다

『오날저녁에도? 설마 아무데도 아프진도 업다는데……』

정순은 경구가 거듭세번이 자기에게 편지를보냇는데도 번도 회답을 주지아니하고만 경구가 식사를 폐지하는것이자기에게대한 일종의 시위운동가티도 생각이되엿다

저녁식사가 거이다 끝날하기까지 행여나하고 경구의 나타나기를 기다렷스나 먼저밥을다먹고난 경애가 쟁반에다 우유를바처들고 이층으로 가는것을보자 정순도 수깔을노코 경애의 뒤를따럿다

『옵바 우유라도 좀잡수서야지 어떠케해요』

하고 경애가 경구의 어깨를흔들엇다 경구는 눈을감은양

『두어두고 나가』

하고 귀찬은듯이 벽을 향하여 도라눕는다

창마다 두꺼운커ー텐이 내리워잇고 남편벽아래노힌 스팀에서는 치ー르르 소리를 내면서 증기(蒸氣)가 올라오는방안은비로ー드보다도 가리 훈훈하다.

『정순이 좀권해봐요』

하고 경애가 정순을 눈짓하는것을보고

『웨어데가 편치안흐세요? 식기전에 우유좀 잡수시지요』

하고 정순이가 경구의 머리맛흐로 닥어섯다

『…………』

경구는 정순의 음성을듯자 친대에 파뭇고잇든 상반신을 절반쯤이르켜 안즈며

『경애 미안하지만 잠깐좀 나가주어』

경애는 흥칫하면서 정순을 향하여 재긋이한눈을 감아보이고는 밧그로 나가버렷다

『난그럼 실례지만 눕겟습니다 좀어즈럽던하군요』

경구는 괴롭게우스면서 도로자리에 누어버린다

잠간동안 방안에는 증기난로끌어올르는 소리밧게 아무것도들리지안엇다

『정순씨! 웨그리고만 게서요 안지를안으시고』

『네ー』

정순은 한편교의로가서 안즈며

『어데가 편치안흐세요?』

하고물어스나

『…………』

경구는 잠자코 한참동안 천정바라보다가 이윽고

『정순씨! 저와결혼해주십시요 …그대답을 듯기전에는 나는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먹지안흘테니깐요 바로『헝거』ー스트라익 갓습니다만 나로서는 정순씨가업시는 세상을 살아갈희망이 업스니깐요』

바삭말르는입술을 몃번이나 빠라가며 경구는 말을마치고 지긋이 눈을감엇다

『…………』

정순은 한참만에야 입을떼엿다 도대체 이커ー다란 어린애가튼 청년의열정을 어떠케 진정식힐도리가업슬가 생각하자

『경구씨!』

하고 가만히불럿다

『내라는 여자에게서 당신이어떤사실을 발견하신다면 아마 당신의 지금하신말슴은 당장에 취소하실겝니다』

하고 그는속으로 어떤결심을단단히하엿다

『취소라니요 하날과땅이 그대로잇는이상 내말을 취소할수는 업슬것이니깐요……무슨말이야요 네? 해보서요』

하고 경구는 또다시 자리에서 벌떡이러나안젓다

戰爭文學 (七)

蛇水戰과 詩

湖岩

蛇水戰은 高句麗末 寶藏王廿一年봄에平壤近傍까지 侵入한唐軍과 高句麗軍사이에 버러진大激戰이다。

蛇水戰에잇서서 唐將龐孝泰의 父子十三人을 비롯하야 그麾下에 屬한累萬大軍이 高句麗蓋蘇文에게 全滅되것으로 보아 그激戰의程度가 어떠햇음을 推察할것이다。

安市戰으로 蛇水戰에 이르기까지 무릇十八年동안에 唐軍이거의해마다高句麗에入寇하엿스나 英傑蓋蘇文이生存한限에는 唐軍이 번번이 失敗를 거듭해오던바 그中에도 蛇水戰가튼것은 아주 慘敗이엿섯다。

高句麗의 滅亡을따라 記錄도滅絶이 됏스므로 詳細한戰史를 알수업음이 遺憾이어니와 (傳言에 唐將李勣이 東國文獻의 盛함을 猜忌하야 書籍을 온통焚燒햇다한다) 當時彼我의 神策이 도리어 史實을 傳해주는배잇다。 이를테면 蛇水戰뿐이아니라 麗唐對峙時代의 高句麗中心人物인 蓋蘇文에게 關해서 이러한 詩句가잇다。

高麗大將蓋蘇文。 去留長安一瞬息。

이것은 彼의小說에 적힌詩句로서 그대로 準信할배는 못되나 얼마큼 이로써 國際上그의 威風을 想見할것이다。

蓋蘇文은 東部大人의 子로 意氣가 豪邁하야 隣黨의 亂離를보다서 大志를품고 中原에 遊歷하야 장차함이잇고저하더니 李世民의 異姿를보고 그만 喪氣東返해서 겨우高句麗의 莫離支가 됏다한다。 柳惠風의 詩에 이를을떠갈우되

寫問西京紅拂妓。 虬髯客是莫離支。

紅拂妓는 蓋蘇文의로맨스로서虬髯客은 蓋蘇文을 가르친이오 莫離支는 唐의兵部尙書、中書令職과가트니 이로보면蓋蘇文은 兵權과政權을 一身에兼掌한 事實上高句麗執權者이다。 史傳에 그의風彩와行動을 적엇스되 鬚髥秀하고美髯鬚하며 冠服은다金으로裝飾하고 五刀를佩하니 左右ㅣ敢히仰視하지못하며 貴人을 땅에업드리게하고 그것을 밟고서乘馬하엿스며 出入에는 陳兵長呼하야 行人을 嚴禁할새 行人이 畏竄하야 坑谷에떠짐에 이르럿다한다。

後世에 蓋蘇文으로써 跋扈無道한人이라하야 그의暗黑面만을 指摘하는傾向이잇스나、그러나 蓋蘇文의當時에 잇서서는 東洋英傑唐太宗으로도 高句麗親征에만는 失敗하엿고 唐의名將들도번번이 失敗하엿는바 蛇水戰의 龐孝泰의慘敗는 그中의一例이다。

× × × ×

學藝

倫理問題의새吟味

—現世代휴매니즘의本質— (2)

白鐵

文學者個人을 두고볼때에 理性이 그人間의 客觀的頂點이라면 感情은 그人間의 主觀的頂點인데 우리들은 平常生活에잇서도 이兩端이

往往 히背離되는境遇에그 두가지對立을 統一하는것이 意志라는 精神的 能力임을 알고잇다 그런데 今日과가티 一般으로 理性과 感情的인것이 背離된運命을가지고잇는 時代에잇서는文學者個人의 生活에 잇서도 恒常 그두가지가 分離되여잇는것인데 이때에도 그兩者의 對立과 分離를 統一하는것은 意志의能力이다 그리고 그것은 眞理에對한 銳敏한感覺에依하야 意志化된 하나의 決意狀態다 나는그 決意는 가르처 漠然한決意가아니라 一種의 選擇作用이며 選擇이되 그것은 理性과 感覺中의 其一을取하는것이 아니라知的判斷과 情的意慾을 兼全한統一이며 理想이 對象에依한 決定이라본다 即

對象 에 대하야 自己心中에 이러난 여러가지 意見가운데서 其一만을 取擇하야『나는 이길을行한다』는 明白한方向으로서 自己를 嚴正히 修正하는表勢다 그러면 그여러가지 意見中에서 其一만을擇하되 그被選의一은 어떤것인가하면 그것은 惡에대한 善이요 不義에對한 正義요 虛僞에대한 眞實을 選擇하는 生的活動이라는것 말하면 그決意는 여러가지 意見中에서 最善最適의것을 選擇하야 그實現을 期하는 하나의 倫理世界다 웨그러냐하면

倫理 란 意志가 決定한 善惡邪正의 判別을 그ㅣ테마로삼은것이요 意志의 作用과 良心의 發展의 規範이며 體系이기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다시 知性의 再建問題를 追求하야 意志的인것을 가지고 決意하고 整理하고 統一한 世界로서 倫理의世界에 到達하야잇다。

그러나、여기서 내가 뜻ㅣ맨이즘의文學的 表現을 하나의倫理의 文學으로 본것은 다만 이倫理를 뜻ㅣ맨이즘의 文學우에만 設定하는것이 아니라한편으로는 우리들의 過去의 모든 文學態度와 關聯시켜서 倫理의 世界에 托하야 그過去를 回顧하는立場에 處하고십다

나는 文學에잇서 倫理란 文學이 文學以外의 世界와 接近하는데서 반듯이 通過해야할國境의

關門 과가티생각되다 가령 現代文學은 哲學思想과 關聯을가지여야한다고할때에 그것은 現代의 文學뿐이아니라 文學은그것이 大文學이요 大小說일사록 그文學은 作家自身의 커다란思想의 完整을기다려서 可能한것인즉 여기서 그哲學思想의 文學의 出現을 主張하는데 對하야 別로 反對할理由가 업스려니와 다만 哲學에接近하는데잇서도 近年의 文學者가 唯物論哲學을 工夫한듯이 그唯物論的世界觀이 곳文學의 內容問題를 解決하는것가티 생각하는 態度여서는 不可할줄안다。 文學의哲學이란 그것은哲學上의 觀念的認識이아니오 一層生命的인 生活의산理想이요 人生的인 決意의것인즉 그것은 단순한哲學이아니라 一種의倫理的인 特殊한哲學思想일것이다

若干性質은 달너지나

現代 文學은 政治와 關聯을갓고 現實을反映한것이여야한다고할때에도 그提唱이 文學的으로意味를가질때에는 直接으로 政治的테ㅣ제와 그이데올로기ㅣ를內容으로하는데서 現實을 把握하얏다는 제스추어를 가질것이아니라 文學者自身의 主體的情熱에依한 倫理的順應或은 反逆을 通하야 嚴格한自得的인 決意에 到達한것을 意味한것인데 이따에잇서 倫理가 곳政治를 意味한것은아니리라! 그러기에 스펜더ㅣ가『모랄은 政治的生活이다』라는말을한것은 어떤境遇의 어떤意味인지는모르되 一般的으로 正當한主張이라고볼수는업다

文學者의모랄은 直接으로 生活이기보다도 비록天賦的은 아닐지언정 作家의强烈한體臭요 精神的才能이요 特殊한德이기때문이다。

나가서

文學 의 基準問題를反省해볼때에도 그것은 客觀的現實이라든가 政治的方向이라든가 또는 客觀的眞理라든가 等의『레디ㅣ메이드』와가튼것이아니라、萬一文學者에게 基準이잇다면 그것은 自身의全意力을 集束한決意的인 生活의現實ㅣ그倫理的인誠實性에 依托하는길밧게 잇을道理가 업지안흘까?

그러키에 過去의 모든 우리 文學問題 即 文學과政治、文學과現實、文學과思想、文學의基準問題 나가서는 文學의社會에대한影響、作家와讀者、文學의大衆化問題等ㅣ切

文學 는 이倫理라는 프리즘을通하야 再組上의意味를 가지지못한다고생각한다。

倫理問題를 이와가튼地位에서 봄에 우리들은 다음文學의倫理에對하야 그것은 一般社會의 倫理와、어떠關係、또한어떠特殊性을가진것인가를 解明해야할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데 文學에 와서 倫理라면 그것은基本的意味에서 反逆의德을 意味하는境遇가 大部分일것이다 가사로文學者가 自己가 處해잇는 그社會의道德에대하야 別로 反逆할理由를 發見할수업는 境遇에는 能히그와同等의 反逆을自己自身에 指하야 敢行하는 反逆이만 그 文學者는能히 自己의 品性을 살게發展시킬뿐이 아니라 自己文學을豐富하게 開拓해갈것이다 本來에 잇서 文學者의

情熱 은 旣成的인것과旣知自明의 事實에對하야 反逆을 敢行하는 精神이다。 近代의 리아리즘小說에 대하야 우리들이 一般的으로 不滿을늣기는것은 그것이 너무 旣存的인것에 追隨하는데서 참된 리앨리ㅣ이엇다 現代에와서 近代의 그리아리즘을 平面的이라는것에서 非難하는것도 그러한 素朴한 精神을 批判하는意味가 아닐까? 여기서『와일드』의말을引用하는것은 리아리즘을 批判하는데너무便宜한手段인지모르나 그의말에『藝術은 模倣이 끗난곳에 시작된다!』는것은 近代리아리즘의素朴性에比하야 超越한文學精神이라고생각된다

文學上의 歷史的題材

그待望되는理由와意義의解明 (6)

韓植

그기때문에 歷史的 레ㅣ마를 取扱하며 歷史를 새로히 認識하는것은 모다現在를 거처서만 可能하다는意味에 잇서서 歷史의現在性 或은 現在의 歷史이라고할수잇는 今日의 時代를一層正確히 바라보며 그것들의基本的인호름에 對하야 一貫하며 適切한 判斷을 가지는것에 다름업다。 即歷史的 時代에對한깁흔洞察과 넓고맑은 視野는 우리로하여끔 잘못하면 看過하며 遺失할수잇는 現實及未來에對한 展望을 더욱明確히 할수잇는것이다。 그리하야 自己들이 살고잇는 現代的現實性을 眞正으로 把握하며 그에對한 批判的認識을確保하기爲하여서 現代를 生産한 過去의時代及 歷史를 알어야할 必要가잇는것이다。 다시말하면 存在하여온 歷史를 遂하야存在할歷史를 똑바른位置에서 眺望하며 그에對한 信念과 情熱을喚起식힐수잇스니 昨日이 멋출인지를 아는것은 今日이 멧출인줄을말하지안어도 來日이 멧출이되겟는가를 헤아릴수가 잇는것이다。『正히歷史야말로 現代의諸事物과 諸現象에對한吟情한 系統的인 기픈理解를 줄것이다。 그것은 現代에對한 열쇠(鍵)며 註釋이며 炬火다』

特히 우리들에 잇서서는 自己들의歷史를 배우지못하고잇다。 우리는 우리自身들의歷史의統一한 知識을 못가질수밧게업는것이다 그런때에 잇서서 그런곳에서 文學하는사람들의 歷史文學에對한 覺悟는 다른따사람보담 一層더욱 큰것이 잇지안으면 안될것이다。

人間性의探求며 文化의正當한擁護며 하는것은 結局 歷史的으로 形成된 우리人間性格이며 우리文化遺産을 가르처말함이며 그와가튼 歷史的으로 鑄造된것들의發掘 伸長 防禦야말로 우리들의 뜻ㅣ마니즘의 具體的路線일것이다。 그리하야 뜻ㅣ마니즘의問題도 이와가튼것을을 더욱喪失하려는때를當하야 歷史的으로 恢復하려는 뜻ㅣ만한奪還意識以外의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勿論 歷史의이것저것 그대로의復興이아니고 그中에서 그의本質을 차즈며 變骸된 베ㅣ근을 버끼는데서부터 出發할것은 더말할것업다。 또例컨대 現代와恰似한 轉換期의人物이라든가 偉大한歷史上의事件들의 諸活寫는 現代의우리들에게 無限한 諷刺조차 주는것이다。 이와가튼때의 歷史文學은 歷史의假託性이라는 問題까지도 提供하하는것이다。 이에 關하여서는歷史文學의 具體的論究의 次稿에서 究明하여보고저한다。 —了—

竝書와雙書

訓民正音의正當한解釋 ⑥

洪起文

(一) 强音이란 聲音學上으로 보아서 보통의 破障音이나摩擦音의 破障이나 摩擦의 作用을 좀더 强하게 하는것인데 ㅎ도 摩擦音의 하나라 理論上으로는 ㅎ音에도 强音이 存在할수 잇는터로 ㆅ가 ㅎ의 强音이라고 推定치못할것은 업다。

月印千江曲에서 ㆅ를 ㆅ이어『ㆅ씨라』라고 하는等 그當時에는 朝鮮語에 ㆅ音이잇섯든 모양이나 이미 消失되야버리고 말앗스니 지금에 잇서서는 未治한 그대로 오즉 理論上推定에 끄치는것이다。

(二) 訓民正音中『다나니라』한 말이잇는데 그러면이 나은 어떠한 音일까? 그여시 ㄱㄷㅂㅅㅈ의 雙書와가튼 한個의 獨特한 子音이겟는가? ㄴㅁ等의 鼻音에는 强音가른것도 存在치 안하니 獨特한 한個의 子音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나『단나니라』와가치 하나는 終聲으로 또 하나는 初聲으로 두個의 ㄴ音이 發音되지 못하는것은 아니니 ㄸ말과 連接될 境遇에 그 ㄸ音을 發音키 爲하야 그러한書寫方法도 不可能치는 안타。 即 조쌀을 좁쌀로、그ᄶᅳᆷ을 곱족으로 내는 例를 미루어서『다나니라』는『단나니라』로 낼것이요 또 그러케 내는 境遇에 限하야 그存在意義가 잇는것이나 아닐까한다。

(三)또 訓民正音中『사ᄒᆞᆷ마다ᄒᆡ여수비니겨』라는 말이 잇는데 그러면 이 ㆀ은 어떠한 音일까? ㅎ과가티 ㄸ말과 連接되는 境遇의 發音을 爲하야 使用하는 것인가? 本來 ㅇ의 初聲은 ㄱㆁㄷㄴㅂㅁㅅㄱ等과 가튼 한個의 子音이 아니요 母音그대로 내는 無音의 字다。 必字合而成音이란 原則아래 訓民正音에서는 母音인 中聲혼자서도 音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야 ㅇ과가튼 初聲을 制定한 모냥이로되 실상『으이오아우어』는 母音 혼자의 發音과 조금도 다른것이 업서서 ㅇ의 初聲은 結局 無音으로 判定된다。 그러나 소리가 聲門을 通하야 나올 그때 摩擦되야 나오는 音은 ㅎ이요 破障되야 나오는 音은 母音과 近似한、한個의 子音이다。 即 놀래서악하고 소리 지를때의 그『악』은 만흔 境遇에 잇서서 單純한 母音이 아니요 聲門破障音이다。 아니 이ㆆ는 곳 그러한 聲門破障音에 近似한子音이나 아니엇든가? 即 訓民正音의 作者는 ㅇ을 有音의 初聲으로 잡고 그러고서 聲門破障音에 近似한 音을ㆆ의 强音으로 친것이나 아닐까?

(四) 朝鮮語에는 ㄸ말과連接되야 ㅂ終聲 乃至 人終聲을 내는 區別이 存在한마큼 그區別을 딸아서 되비읍 또 되시옷으로 恒常 그 强音을 表示케 되는 것이지만은 漢字에는 그러한 區別이 업스매 强音의 形態를 一定케맨들수밧게는 업지 안혼가? 强音의 여러가지 形態中 에서 그 代表的形態를 擇擇하자면 그 어떠한 것을取하겟는가? 勿論 雙書엿슬것이다。 漢字音에 限하야 그强音이 全部雙書로 統一되것도 怪異치안타

(五) 訓民正音 月印千江曲 龍飛天歌等에서 表示한 漢字音은 그當時에 通用되든 音이 아니요 어떠한一定한標準아래 全部 整理해 노흔 音이다。 그건 그後 얼마 안지나서 나온 訓蒙字會나經傳諺解의 音과 大相不同한 것만 가지고 보아도알수가잇는 일이니 그동안의通用音이그러케 變하얏다고는 생각할수가업다。 그러니까 ㄲㄸ等의 初聲으로 表示한漢字音이 오늘날 强音으로 안난다고 그것으로 미루어 이强音이 아니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적어도그漢字音의 整理된바 標準을 明白히하지 안해서는 그러한 抗議를 提出할權利가 업다。

그런데 ㆅ만은 訓民正音에아조 ㆅ의 音으로 明記해 노흔것이로되 ㅥㆀ等은 何等의 明記가 업고 또 固有한 朝鮮語에 써나고는 하되 그 用例가 실로 한두곳에 不過한다。 龍飛御天歌、月印千江曲等에서 다른때 그런 말을 쓰게 될때는 어떠케 햇느냐 하면 全然 그러한 初聲을 쓰지 안한것이다。 그러니까 좀 甚하게 말해서는 그版本의 誤謬라고도 主張치 못할것이 업다。 아니 한거름 더 나가서는 訓民正音의 製作을마치고 다시 그로써 實用의 言語를 標音할때 그著者라고해서 반듯이 正確한 統一을 期必할것은 아니다。 要컨댄 ㅥㆀ의 音만은 알수 업다고하더라도 이미 알어진 ㄲㄸㅃㅆ의 音까지를 그때문에 不可知로 미루어 버릴 理由는 업지 안한가? ㄲㅃㅉㅆ를 ㅥㆀ과한께 不可知로 미루어 버리기爲하야 된비옵의 ㅃ나 된시옷의 ㅆ는雙書의 ㅃㅆ와 偶然한 同形으로 同音된데이 업다고까지 하자니 그얼마나 수고스럽겟는가? 그러지말고 차라리 訓民正音에서 整理한바 漢字音의 標準을 闡明해서 거기서든 斜閉步懸邪洪等字의 初聲은 어떠한音의 强音과 全然關係업는 音이라는것을 立證하라。 그러케 할진댄 나도 나의見解를 即席에 取消하고 그를 追隨하기에 躊躇치 안하리라。 事實로 나도 그闡明을 도모키 爲하야 方今中國의 廣韻學을留意하고 잇는中이다。 그結果가 나의見解를 裏書하게 될는지 또는 그反對도 나갈는지는 자금에잇서 내自身조차도 確斷키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硏鑽으로서 躁急히 結論을 지으라고 한다면 牙音에잇서 群、舌音에잇서 定、脣音에잇서 並、齒音에잇서 從과邪、喉音에잇서서 曉의 初聲과가티 古代漢字音에는 一種獨特한 音이잇섯고 訓民正音의 作者가 그 獨特한漢字音을 朝鮮語音으로 옴기어서는 各個의强音에 該當하다고보앗든것갓다。 그야 見溪端透幫滂等 初聲도 音聲學上 嚴密히따저서는 바로 곳 朝鮮語音의ㄱㅋㄷㅌㅂㅍ等 子音그것은 아닌터로 結局은 그역시 朝鮮語音에서 가장 가까운音을 따러옴긴데지나지못하는 것이니 群定並從邪匣等의 初聲을 朝鮮語音의 各個强音으로 옴기어 온데도 一理가 업는일은 아니다。 거기對한 論議는 이다음 나의 工夫가 더 좀成就키를 기다리기로 하거니와 위선 以上의論證으로도ㄲㄸㅃㅉㅆ의 雙書나 ㅺㅼㅽㅆ의 되거 옷이나 똑가튼 强音이라고 斷定키에 充分하다。 내가어느一部에 雷同乃至反對키 爲하야 일브러 그러케 斷定을 짓는것이아니라 조그만 나의硏究結果나마 그러케 斷定을나리지 아니치 못하는것이다。 本來現下의朝鮮語學界에는 재미롭지 못한 氣風이 흐르고 잇스니 그는곳 自是他非를 들어내기爲한先入見의 對立이다。 그러한 先入見을 빼고 冷靜히 나의 말을 들어 줄수만 잇다면 꾸지람도 더 情답고 稱讚도 더 고마울지 안할까고 나는 그욋한 不平을 버리지 못 한다。 지나 ㄲ나 어찌 쓰든지 가튼 音이요 지나 ㄲ나 어찌 써도 訓民正音에 容許되는 글짜다 지로 쓰느냐 ㄲ로 쓰느냐를 가지고 春秋義理、처럼 떠들엇자 실상은 一匹의 쥐를 가저 天下를 鳴動시키려는 格이다。 —完—

對照의美展

學藝小杯

獨逸의 古都 뮨헨은 이番 法令으로써『獨逸美術의首都』로 指定되얏는데 最近 거기서 두個의 美展이 開催되얏스니 하나는 禁止된 美術作品의 展覽會요 또 하나는 公許된 美術作品의 展覽會다。

禁止된 美術作品의 展覽會에는 주장나치스가 出現하기以前 다다派、未來派 近代派等의繪畵、彫刻을陳列하얏는데그중에 그못스 코코슈카等의 作品을 비롯하야 피카소 風의 立體派 作品까지가 陳列되엇다 이러케 墮落한 精神病的 美術은 맨들것이 아니라고 그 惡例의 標本으로서 公開한것이요 公許된 美術作品展覽會는 나치스精神을 鼓吹하야 맨든 御用畵家 彫刻家들의 展覽會로서 히틀러總統自身이 出品한 한幅의 水彩畵를 가저 그 會場의 中央을 장식하얏섯다。

錬金術

批評家의地位

一丈 淸

멧칠전나는 어떤 文學靑年으로부터『批評家와 作家의 關係를 說明해 주시오』하는 注文을 바덧스나 그方面에 專門하지못하는 나로서는 倉卒間 무어라고 쯤하기가 어려워 그대로 돌려보내고 만일이잇다。 그以後 오늘까지 나혼자 주먹九九로 그들의 關係를 풀어도보고 따저도 보앗건만 종시 一定한 解答을엇지못한 까닭으로 紙上에실어 大方의 叱正을 請코자한다。 누구의 말인지는 모르나 批評도 一種의 創作이라고 한다。 그는 아마作家가 어떠한 素材를 取해서(?)서 自己獨自의 이데를 展開시키어 주드시 批評家는 다시 어떠한 作家를 通해서 또 自己獨自의 이데를 보여준다는 말일것이다。 그러라면 그 둘의 關係는아조 明瞭치안한가? 即 서로 依存은 할망정 서로 並立한것이 아닌가? 그러나 批評家中에는 하편으로 文化思潮의 바른 啓示를 나리고 文學方法의 새로운指南을 이루어 作家를 敎養시키고 일깨고 그래서 領導하는이도 업지안코 또다른 한편으로는 한作家 乃至 그의 한作品을노코 그描寫 그構成等의 任意的分析과 論評으로 終始하고마는이도잇다。 前者에잇서 批評家가 作家의 上位에 處하는것이라면 後者에 잇서서는 批評家가 作家의 下風에 업드리는 것이다。 자이러케 批評家와 作家의關係란 批評家 自身의 力量또는 態度에 딸아서 種種으로 成立되거니 나가는 門外漢으로서 어떠케 一定한關係를 規定지어 말할것인가? 敢히 못건댄 批評에 從事하는 분들은 그어떤 種類의 關係로써 批評家의 참다운 本領이라고하느뇨? 끄트로 꼭 한가지 指摘할것은 朝鮮의 批評家들에게는 그세가지種類로부터 더 한거름 내키어 自己一流의 讀後雜感으로써批評의 全部를 삼는 傾向이 잇다는 것이다 그中에서는 심지어 個人의 好惡아래過度의 讚嘆과 詬辱을 濫用하는例도 업지 안타는것을 이저서는 안된다。

科學

種種의特異性을가진 濟州의地理 ④

姜在鎭

四、情圓環狀的土地利用帶

漢拏山을中心으로 山頂에서 森林地帶(六百米以上)、山間地帶(三百米以上)、中間地帶(二百米以上)、海岸地帶 或은耕作地帶(二百米以下)로 分類할수잇는 情圓環狀帶的으로 土地를利用하고잇는것을볼수잇다。 即森林地帶는 二七三〇六町步의 國有林으로 保護利用하는中이며 이森林地帶와山間地帶의 漸移地帶에서는 濟州島의 特産物의一인 椎茸栽培로 有名하다。 이栽培의開放者가 日本內地人인關係上 內地人의 根據地로 南斜面에 栽培場이第一만코 北斜에서는 朝鮮人이 最近에와서 栽培하기始作하엿고 北斜面의이地帶에서는 南斜面의椎茸栽培와아울너 木炭製造가 朝鮮人의손으로 盛히利用되고잇는 現象이다。 山間地帶四萬五千町步는 雜草와茅類 고사리等의 草原地帶로써 牛馬가放牧되여잇다 그中間에는 耕地 一萬五千町步가十年에 一耕或은 二耕으로 稗가主로栽培되고 中間地帶는 三萬町步로 草地와耕地가 混入하엿는데 耕地 千五百町步는 五年에 二耕ㅣ三耕을하게된다

以上地帶에는 湧水缺乏 或은不足으로 人家는 若干의 火田民을除한外發達을 불수업다 海岸地帶는 水田 八九一町步 밧(畑)六九六〇町步로 村落이갈작이 密集한地域인때문에 耕作地周圍에는 數만은 熔岩砂礫을囲壁도하고 放牧牛馬의侵入을 막기爲하야 놉이 五六尺의돌담을 싸아두엇다

以上土地의 利用으로 말하면 海岸地帶는 比較的 集約的으로 耕作하여 肥料도若干하고 除草도하는 모양이나 中間地帶는粗雜한 原始的으로 休閑耕作하되 三年乃至十年間이나 輪換放牧에 利用하는程度이다 耕作을 하더래도 조와가튼것을 播種할적에는 馬를十頭ㅣ二十五六頭를 한꺼번에 使用하야 種子를 잘밟치도록 踏壓한다하나 이는 地形、土壤 氣候의關係로因한 特殊性 일것이다 그러고 中間地帶는 如斯히 粗雜한 原始的農耕인 輪換放牧 이나마 利用하지만 山間地帶인 三百米 以上 高度急峻地帶인 六百米附近 空地까지는 저 海岸地方처럼 然岩石도 험신希少하고 火山灰의 集積으로 土質이 比較的 肥沃한데도 不拘하고 放牧地그대로 放置되여잇다 이는 勿論 中間地帶의 原始農耕法과한가지로飮料水缺乏으로 農村이 이地域에 發生치못한것이 重大한原因일것이다 이原因을 除去하기爲해서는 島當局에서도 立案計畫中이라한다 萬一如何한 方法으로던지 이地帶에서 飮料水를 어들수잇다면 濟州島는 現在收容人員二十三萬의倍를 包容하리라한다 이제 發見될지모르나 飮料水를 어들 一三의方法을 例示하면 다음과갓다

一、地下伏流를 利用하야 井水를엇도록努力할것 二、山間地帶上部인 觀音寺附近을 흐르는 都近川上流의谷을 水源池化하야 漢拏山傾斜地인 山間 中間地帶에 灌漑引水할것 三、消極策이나마 至今中間地帶ㅣ部에서 使用하는 天水飮用을 좀 合理化시킬것

以上三項中 前二項은 勿論科學的技術과 大資本이 必要하므로 微弱한 民間의 힘으로는 바랄수업는것이다。 最近 傳해오는 濟州島開發은 이方面의 資본이 아닌가 생각하니 濟州島의 將來를 爲하야 祝福할일이다。

月面上의無數한凹凸은 果然噴火口일까

宋大善

望遠鏡으로 달을 보면 꼭 그表面이 마마에 얽은것가티 전부 얽어 매고 찍어매어 잇는데 그전에는 그것을 火山의噴火口리라고 推定되야 왓섯다。 달ㅅ속에 桂樹나무가 잇고 그아래서 嫦娥가 玉토끼를 다리고 藥방아를 찟는다고 하는東洋의傳說도 結局 말하면 그러한 噴火口로보터 울어나온 想像에 지나지 안는것이다。 그러나 近者에 이르러는 그噴火口說이 漸漸 뒤로물러가는同時에 隕石口說이 擡頭하게 되얏다。 即月面에 落下된 無數한 隕石이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와가튼 자욱을 남기게되것이리라는것이다。

二十年前만해도 地球上에서發見된 隕石口라면 北米아리조나州의 카니욘 데이아블로와 시베리아 룽구스카의 포도케에나야뿐이엇스나 그後여기 저기서 續續發見되야서 지금은 地球上에도 無數한 隕石口가 잇다는것을 알기에 이르럿다。 月面에도 그와가치 無數한 隕石口가 存在할것은 事實이요 그隕石口의 자욱이 마치얽은것가치 보이는것이 아니냐고 하는것이다。

처음隕石口가 發見되엿을때는 水蒸氣의 爆發로 因한것이라는等 또 石灰岩이 沈下한것이라는等 種種의 말이잇섯다가 바링카로부터 비로소 그것이 隕石이落下된 地面의 傷痕이라는것을알게되얏섯다。 그周圍에는 數千이라고 헤일만흠 만흔 隕鐵이散在해잇섯더라 바링가의 그學說을 否認키는 어렵다。 그런데그 조그만 隕鐵들의 母體인 큰隕石은 어데로 갓을가고 그속을 뚤러까지보앗건만 아즉까지 發見치 못하얏다。 大槪 十萬噸 乃至千萬噸으로 想像되는 隕石이 一秒四十哩의 速力으로 地殼과 衝突됏을때 그큰덩이도 衝突의무서운壓力에 依하야 片片破碎되얏슬것이라 今後 永久히 그發見이 不可能할는지도 아지못한다。

何如튼 그隕石口로부터 우리는 달의 얼근자욱과 무엇을聯想하는가? 第一 그밋구덩이周圍의 壁보담 나즌것 또 周圍의 壁을 이룬 그것으로 그구덩을 꼭 메우기에 足할만한 分量으로된것이다。

돌을 물우에 던진속 波紋이四方으로 퍼지지만은 물대신모래우에 던진속 周圍로 壁을 이루고압지 안는가? 月面이얽거 잇는것도 地面의 隕石口와가튼 隕石口라고 推定키는 어렵지 안타。 그것을 人工的으로 實驗해본 學者가 잇다。 그는 고무공과가튼 彈性體를 개여논 세멘트가튼데 던지면 月面의 얽은구녁과가티 패인다는것이다。 그러나 그보담 더 精巧한 實驗을 大陸移動說로有名한 알푸레드·웨게나博士가 行하얏잇다。 그는 分子力이 比較的 올곡이지 안는 物質 即 土砂와 가튼것으로써 세멘트우에 던지어 꼭 月面의 그구넉과가티 맨들어 낸것이다 그後이러한 實驗은 여러學者에 依하야 여러번 되푸리되엿다。 土砂대신 石膏의粉末을 가지고도實驗해 보앗다。 그러데 그結果 그 구넉은 히게 되피는同時 白粉이 四方으로 飛散하얏는데 실상 그구녁에 되핀것은 얇고 大部分 바그로 흐러젓다는 것이다。 그로써 隕石口의周圍에 隕鐵이 어째서 그러케散在하나 隕石은 실상 發見되지 안는다는 原因을證明키에 足하다。

그런데 月面에는『中央쇼』라는것이 잇다。 그것이 어떠케된것인가를 說明해야 된다。 웨게ㅣ나ㅣ博士의 說明에依하면 그것은 隕石衝突前 月面物의 殘存이라고 한다。 그러키때문으로『中央쇼』는 周圍의 部分보담 決코 놉지를 안라는 것이다。

寫眞은 月面의 隕石口

山中雜記

—神溪寺에서— (一)

崔仁俊

내가 外金剛 神溪寺에 들어오기는 八月初旬頃이다。 나는바루 神溪寺境內에 隣接한 私家한채에 舍館을 定햇다。 勿論神溪寺境內에도 제법 잇슬만한旅館이 두군데가 잇스나 너무人目이 煩多하야 靜養處가 되기에는 여러가지 難點이 잇고또 金剛 四大寺中의 하나인 이神溪寺에만 끈달린 廐子가 넉넉히 열존가락을 헤일만하나 모두 人跡到處의 窮僻地라 너무 寂寞하야 俗人의 趣味에 不適하고 하야 나는 非僧非俗의ㅣ그말이 表示하는 거이 完全한 意味의 適當한 處所를 物色햇다。

이미 내가 여기定한 舍館이 人村과는 좀 동떠러저서 외따로운 場所에 잇고 또이집의構造와 施設이 全혀 修養客本位로 되여잇서서 암사랑채를 改造하야 장판房을 맨들고 방아프로 應接室兼食堂用의 마루방을 드리여 瑠璃窓장문까지 다러노흔것이 朝鮮式도 아니요和式도아니요、洋式도아닌 이를테면 非僧非俗의 折衷式이다。 本是 少時로부터 法門에 歸依하야 以來로 六十가까운 이집老長이 늙으막에 娶妻하고 還俗하야 마누라와함께 餘生苦樂을 맛보며·죽는 날이나 기다리려는것이 아모런生産的인 手段을 가지지못햇기때문에 爲先 구차한 生計를 營爲하기爲하야 修養하는 손님을바다드리기로 하고 그러되 煩雜한 旅客처럼 손님이 하로이틀사이에 번갈아들어옴을 끄리여 적어도 一個月以上 留宿할 所謂修養客만을 치려고할도 亦是非僧非俗的인 生活方策이랄가。

이제 내가 俗世를 멀리하고 이깁흔山中에 들어옴이 무슨世上을 悲觀하야 入山修道할 心事도 아니오 더구나 入寺俗하겟·天下名山 金剛探勝의 行脚을 떠나온도 아니요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非僧非俗的인 出發이라 할진댄 여기에 미리 準備되여잇는 非僧非俗的인 諸條件과 어지간한 一致點을 發見할수잇슴은 퍽이나 多幸스럽고 또 愉快한 迎合이라 안할수업다 하야이『非僧非俗』이란 語彙의 本來의眞面目을先分히 發揮할수잇는 이러한 條件이 내게는 다시업시 조흔機會인것이다。

내가 처음 이집에 올때에도 修養客만을 바라는 그希望條件에 最大限度로 相副하기爲하야 한달以上 留宿하겟다는것을 老長에게 約束해주엇다。 하고 잇서보아서 더욱 마음에들면 三冬이라도 넉넉히 견듸여보리라는 어리빵빵한 意思까지 表明한바이섯다。 그리함은 爲先主人老長을 安心시키려는나의綿密한 計算이숨겨잇다고 할것이나事實인즉 내의 寒微한行裝이 이山中의 嚴冬雪寒을 堪耐하기에는 너무나 未備한점이 만흠을 認定하지안흘수 업다。 하드래도한창 무서운 八月伏中에 避暑와서 벌서 反季節的인 겨울사리準備에 마음을 쓴다는것은 그리 贊成할만한 攝生法이라곤할수업슬것이다。

허나、이왕 準備云云의 말이 낫스니 여기에들추어내는것이지만 지금내게넉넉하니 準備되여잇는것은 한가지『담배』뿐이다 담배는아예집에서 떠나올때 五十匣 들은 마ㅣ코 한통을 미리 準備해가지고 나왓으니 아무리 담배가가 먼 길숙한 山中에 들어왓드래도 압프로 한달동은 吸煙의 寒寒할理 업슬게고, 이제 또 金剛山 들어오는길로 吸煙道具의 재떠리와를 쪼리까지 장만햇으니 내스스로 可히 足함을 알만하다。

여기 나무로 훔친 재떠리와 水晶으로 맨든 물주리는 溫井里에서 神溪寺오는 定期自動車를 기다리는동안 溫井里거리를 오르내리며 몃군대 名産特賣의 商店을뒤지다가 갑싸고 수수하고 마음에도 들기에 집어든것이다。 못해도 우리愛煙家에게는 이만한 程度의 豪華스러운(?)奢侈는 許容해줌이 可當하다。 내가 이번에 새로 所有하게된 天下絶品 재떠리라 물주리에는 모두『金剛山』이란 뚜렷한 刻印이 찌키엇스니 宜當名勝記念도 될법하고 그亦 非僧非俗的인내의 한가지 趣味랄수도 잇다。

—八月某日。—

偶會

秋園

余與同鄕二三友會飲於三淸旅舍因得近體一首

携 搜景傍溪行
暗裡淙淙細有聲
夜闌孤館燈還瘦
秋入千家砧亂鳴
愁多酒力從前減
物換詩情次第生
萍水相逢同不返
片時殘夢逗鄕程

漢詩募集

題 秋夕
押 明
期 九月十五日

新刊紹介

▲野談 九月號(內容) 特輯=大院君侍下春風秋雨卅年=韓末祕錄 儒林義話 三國遺事 韓末秘話 讓寧大君漫遊記 女裝少年 八竹島外 他靑龍寺其他 發行所 京城鍾路二丁目四五 野談社 振替京城一一八三八番 定價三十錢

▲高麗時報 第七十三號(月二回) 發行所 開城府北本町三九九高麗時報社 振替京城二四〇九三番 定價一部五錢

▲批判 九月號(內容)北支事變特輯 日蘇問題乾盆子島事件과滿蘇國境問題 現代思潮의大衆性과流行性、農業朝鮮의 檢討의 檢討 東一銀行紛糾의眞相 產米增殖計畫의復活 社會時評創作等其他 發行所京城府寬勳町一四六 批判社 振替京城一三七八七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時光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淸凉里町時光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錢

▲朝鮮行政 九月號 發行所 東京市京橋區銀座西七丁目一 帝國地方行政學會 振替東京一三番 定價五十錢 送料二錢五厘

▲基督敎報 第二十三號(週刊)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一二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8月30日より9月5日まで 千恵藏·美ち奴の顔合せ
時代劇 謳へ春風 11·30 2·50 6·50
ニュース 北支上海戰況 12·50 3·10 8·00
一世の名作映畫化完成
現代劇 眞實一路 1·00 3·20 8·10
各席全部 大人30錢 學生小人 30錢
黃金座

◇九月一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祝祭日은晝夜三回公開 (낮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밤七時十五分始映) 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二大傑作同時上映)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광크大活劇 武裝한市街 監督 스ㅡ자아ㅡ도레이스파ㅡ 主演 라프 베라미 데ㅡ워드 홀드 ◇PCL·日活·チイチク合同製作 華オールトーキ版 現代戀愛歌謠劇 東京ラプソデー 監督 伏水修 主演 藤山一郎、椿澄枝 星玲子、大村千吉 全發聲 ニュース 四卷 파社特作全發聲漫畫二卷 京城新町 (電本)五六七七番 新富座

空前의四大異色篇大封切 九月一日부터特別大興行! 名匠오도부로파ㅣ氏監督作品! 米매도로포리탄超特作日本版 海洋復讐 暗黑의復讐 웰니암와ㅣ남氏決死의猛演 이부사ㅣ산嬢·랄푸인스氏助演 東日大每撮影班決死의製作 記錄映畫 北支第一線 PCL超特作全發聲 山本薩夫氏監督作品! お嬢さん 霧立のぼる 淸川玉枝主演 北澤彪 山縣直代 助演 極東映畫特作連續時代劇 後藤岱山氏監督 まぼろし城 前篇 雲井龍之介 主演 妙蓮子 助演 鍾路 電光三九五 優美館

◇九月一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上映 낮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超大作 大傑作品) ◇甲陽映畫社特作오ㅣ루ㅣ사운版!! ◇RKO超特作全發聲日本版!! 空中活劇 嵐の翼 主演 리차ㅣ드 아ㅣ렌 時代連續大活劇 奇傑黑鷲 前後篇十五卷同時上映 監督 下村健二氏 主演 羅門光三郎、櫻井京子 電(龍)一三三三番 桃花劇場

九月二日부터三日間大公開 松竹名畫特別鑑賞週間 每日晝夜三回公演 一回十二時、二回二時二十分續映 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松竹大船社超特作全發聲 原作 曾我廼五郎氏 監督 齊藤寅次郎氏 現代名畫 この親に罪ありや 主演 坂本武氏、市村美津子 岡村文子、水島光代 松竹京都特作品全發聲 監督 岩田英二氏 江戶綺編 女のまこと 共演 坪井哲、柳さく子 堀江清子、中村吉松 松竹京都ト加茂社特作全發聲 時代活劇 白虎隊 主演 阪東壯之輔、平原恭子 北支ニュース特別上映 電光一七五五 第一劇場

鄕愁에 잠긴 …루이제·레이너…

『巨星지펠드』以後로 싸어 올린 … 아직 巨星까지는 못간다고 하더래도 燦爛한 星座의 하나쯤은 될것이다。

… 몸은 눈동자、당으린입설 어듸서던지 불타는듯한 南歐의 情熱이 엿보히지안는것이 업스나 홍크린머리칼을 다스리지안코 멀니 노피 무엇을 그리워하는것은 또한가장애처러운『노스타르지』에 사로잡힌때이다

루大統領夫人이 映畫宣傳文執筆

◇…全米에퍼진讚否兩論

米國大統領『루-즈벨트』夫人이 映畫宣傳文에 署名까지너허서 執筆을하여다고 지금 全米에서 大센세이순을 이르키고잇는데 그映畫는『유나이트』傘下의『사뮤엘、골드윈、프로』의 大作『스테라、다라스』(바-바라、스타윅크』主演)인데 宣傳文은『스테라·다라스』는 세상의어머니들에게 重大한問題를 惹起한다는 題名으로서 그싸러-데이·이브닝·포스트』誌에 揭載되엿다。一部에서는 大統領夫人으로잇스면서 宣傳文을 쓴다는것은 넘우나 輕率한일이라고해서 非難하는이도잇기는하나 또 그 半面에 大統領夫人을 잡아내인 映畫會社의 心臟이 强한데對해서 驚嘆하는 사람들도잇서서 贊否兩論이 서로 奔騰하고잇다。그리고 大統領夫人의 報酬에 對해서는 아직 何等의 發表가 업스나 全部를 慈善事業에 寄附하리라는 말이 盛行하고잇다 (寫眞 左는루夫人 右는스타윅크)

라디오

三日(金曜)

◇午後六時 童話〃꾀만흔참새〃 金泰午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農地令이야기』 崔鍾瑀
◇同七時三〇分(東) 管絃樂 一、歌劇『로-엔그린』前奏曲 와-그너-作曲 二、안단테·칸타비레 차이코프스키-作曲 三、凶牙利行進曲 베르리오-즈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大塚淳
◇同八時 軍歌工夫〃日本海軍〃 鈴美合唱團 指揮 李鍾泰
◇同八時十五分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홍타령 四、개고리타령 朴初月 朴玉花
◇同八時三五分 歌詞 一、相思別曲 二、길軍樂
◇同九時(平) 講演 殉敎七十一週忌를當하야 토마스牧師 吳文煥 大笒 文明仙 徐山玉 杖鼓 金永根 金一宇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獨唱
◇同六時二十五分(東) 講演
◇同七時三十分(東) 管絃樂
◇同八時(大) 義太夫
◇同八時三分(東) 講談
◇同九時(東) 時事解說

四日(土曜)

◇午後零時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어화靑春 二、唱劇調 沈淸歌中船人따라가는데 朴秋月 杖鼓 池龍九
◇同一時 野球試合實況(國語) 一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一 京城實業野球聯盟國防獻金試合
◇同六時 對話劇과童謠 一、對話劇 거북이、토끼、두꺼비 二、童謠 1、소라 2、달(手端樂獨唱) 3、무지개 4、조희배(李明順獨唱) 5、댕댕이 指導 天道敎少年會 伴奏 金中子 林英培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가을에우는버레들』 趙福成
◇同七時三十分 時事解說 蘇支不可侵條約
◇同八時(旭) 아이누音樂 一、무쿠루獨奏 二、舞曲 旭川近文舊土人部落民等
◇同八時一五分 軍歌工夫『日本海軍』 鈴美合唱團 指揮 李鍾泰
◇同八時三〇分 배이올린獨奏 一、소나타 슈-벨트作曲 二、維也納의民謠 크라이슬러編曲 三、산송과판빠-느 크-프랑作曲 四、타이스의冥想曲 마스네作曲 피아노伴奏 桂貞植
◇同九時 古談 張志浩

第一放送
◇午後○時五分(東) 野球
◇同六時(東) 童話劇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八時一五分(東) 皇軍慰問夕

五日(日曜)

◇午後一時 野球試合實況(國語) 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京城實業野球聯盟國防獻金試合
◇同六時 管絃樂 1、行進曲錨揚 2、行進曲 와싱톤의郵便車…스-자作曲 3、칼-王行進曲…윤라-드曲 4、蒙古行進曲…스-자作曲 5、伊太利國王行進曲…가베티作曲 6、行進曲永遠한忠誠…스-자作曲 7、行進曲 大勢과버거크-라브 DK管絃團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晋州敎會牧師 朴勝彬
◇同七時三〇分 라듸오小說『달밤』—李泰俊作 沈影
◇同七時五五分 音律 鸞山會相中에서 一、잔靈山、가락도도리 二、上絃、잔도도리、下絃 三、念佛、打鈴、軍樂 玄琴 洋琴 笑琴 短簫 細笛 杖鼓
◇同八時二五分 流行歌 一、그대면그대여(進) 二、南國의사랑(進) 三、四月南風(尹) 四、京城行進曲(尹) 五、六月의노래(進) 六、江南아리랑(尹) 伴奏 DK管絃團 尹建榮
◇同八時五五分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토끼타령 宋萬甲 韓成俊 杖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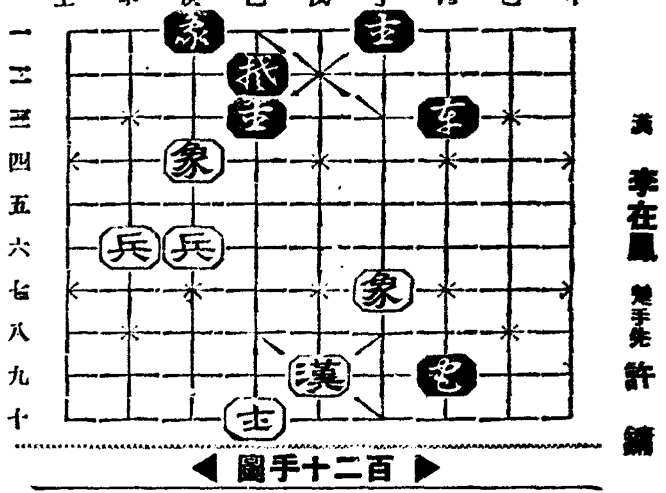
老俳優『바라모아』三重祝賀會

名優『라이넬、바리모아』老의 生誕五十九年과 俳優生活五十年과 映畫生活 二十七年이라는 三重의祝賀가잇서 最近 그의 所屬한『메트로』의『스타디오』─때맞친『사라토가』의『셋트』에서 盛大하게 開催되엿다。그래서 MGM의 撮影所長『루이스、B、메이어』는 紀念의 金時計를 贈與하고『진、하-로-』와『마-나、로이』는키쓰와 抱擁을햇다 (寫眞은左로부터『게-블』『로이』『바리모아』『메이어』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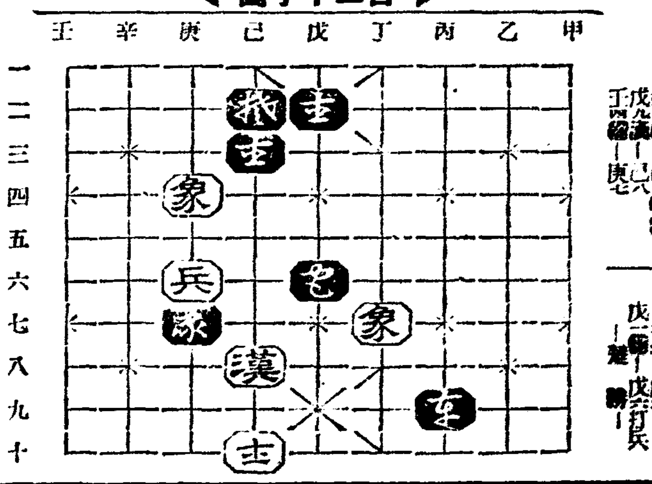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二十)

漢 李在鳳 楚手先 許鏞

◀ 第百十手圖 ▶



◀ 第百二十手圖 ▶



丙九包一丙一 庚六兵一己六 庚一包一丁四 辛六兵一庚六 丙包一丙九 呼將 戊九漢一己八 丁四包一庚七

己六兵一戊六 丙一車一戊一 戊六兵一丁六 丁包一戊二 丁六兵一戊六 戊二漢一戊六 打兵 一楚勝一

『윌리암·웰르만』監督品『유나이텟드』提供『스타ー誕生』은『쟈네트·게-너-』『프레데릭·마-취』『아돌프·멘쥬』의 三스타-가 出演하는데이 박게도 넷날에는 銀幕의 明星이라는稱讚을밧은 佳人麗人이『세르즈닉크』미테서 銀幕에의 復活을 希望해서 特히 出演하고잇다。그中에는數年前까지『스크린』의 偶像이엿든『베-라·스테-트만』을 비롯해서『메리·픽포-드』의 最初의 남편이엿든『롤루어-』이『스타ー誕生』에出演한『쟈네트·게-너-』에게는 憧憬의『스타-』이엿든『헤렌·차-드윅크』第一回의『프로드웨이·메로듸』에노래한『좌르-정』當年의『렙플』的人氣를끄울은『메리-젠·아-빙』等等 다 넷날때를이모혀잇다

× × ×

『第七天國』을 밧은『시모논·시몬』은 徹夜撮影을 한때문에 아주 녹조가되엇서도 일을 始作하기만하면 百퍼-센트의 熱을 내여 조곰도 弛緩되지안헛다。그러나 그이튼날 試寫를 보니까『시몬』은『그리세링』만으로는것이아주 審判로되엿고 相對役『지미-·스튜아-트』는 나무기동가티 빽빽하게되여서 새로이다시 撮影을하게되엿는데『시몬』은遲慢하기를『述懷』는 熱만으로는 되지안는가바 아모래도 혀잡이 들지안코는『……』는 아닌모양인듯。

× × ×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소리

柊林토픽

(1) 退役스타-의蘇生
(2) 演技와情熱의相剋
(3) 갈보와小型自動車
(4) 루비취의喫煙戰術
(5) 살끄은것도선물?

× × ×

『그레타·갈보』는 맨처음 허리웃드에와서 購入한自動車가 아주 舊式인것이 하나잇는데 어느날 거리의『가-레지』를지나다가보니까 그압헤 서잇는自動車가 아주 새것이고 조그만한것이 하나잇는것을 보고서 車에서 네려서『가-레지』쪽으로 거러가다가 무슨생각을하엿는지 다시 도라서오면서 속으로 혼자 중얼거리는말이『역시 고만둘가바 저른 자동차를 타고다니면공연히 남의눈에만 뜨이니까』

× × ×

한『갈보』도 普通때에는 퍽 검쟁인가바。—

× × ×

언제나 여송연을 물고잇는『에른스·루비취』監督은『취-스』를 제일실혀하는데 그夫人은 또여송연이 질색이라고한다。이러한 夫婦間에서엇지하다가 風雲이 危急해서로 戰時體制를 가지게되여 夫人은 여송연만피우고 君은『취-스』만내여놋는다。이러한 戰術로 彼此에 持久戰을하다가 차차로 形勢가 밝어저 停戰狀態에 이르면『루비취』는 여송연을 입에서빼고 食卓에는『취-즈』가 오르지안는데 休戰條件을 提示하는편은 매양『루비취』이라고—

— 하고 斷念을하엿다는데 銀幕에나와서는 女王과가치 華奢—

× × ×

『죤·크로포-드』를 비롯해서 햇살에 그으른것쯤은 問題도삼지안는 一部가잇는데 밤에는 舞踏로 나제는 寢床으로 해를보지못하는 習慣을가진『쏘피-·탓커-』는『프로드웨이·메로듸』의 撮影에서뽑은것이 하도 도라와보니 햇살에그을은것이 이상해서 色彩寫眞의 技師를 불러다가『피욕』잇는 日가치 寫眞을 박어서 동무들에게 선물로 보낸다고—

(寫眞 上은『그레다갈보』下는『시모노·시몬』)

演藝消息

音樂發表會

李升學門下生

오는 九月九日午後七時半부터 市內府民館에서 李升學門下生第一回音樂發表會가 열린다는바 多數의 新人이 出演하며 伴奏는 金信福 李升學兩氏이라고한다。

朝光 九月號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九月號 定價四十錢

日支戰爭의將來

—支那의對日作戰의全貌— 李靑山

北支事變卷頭言

金剛山案內者座談會

金剛山을案內하는사람들을모아 여러가지滋味잇는座談會를열엇다 案內者로서의苦心談도男女가지 案內한珍談그傳說의內容等가지가지자미잇는이야기를여기서읽으라…

朝鮮文学의再建方策

質的向上의努力…李軒求
古典에의歸還…金南天
特殊事情과發展性…韓仁澤
時代的自覺과反省…李源朝

文壇放送祭

(新秋의文壇人이總登場하여 各其才能을競爭한趣味讀物)

各界人士의飮酒量…世界小新聞
各界人士의喫煙量…笑話
各界人士의眼鏡度數…漫畫
各界人士의몸의흠…米國雜誌部
各界人士의散步路…處世訓
映畫·演劇界消息…신드바드奇譚

□朝鮮名弓이야기…申鼎言
□朝鮮三海傳說…靑吾
□感孝代命…玄哲
□말코니의死…一舟生
□文益漸…翠雲
□音樂手帖…任東爀

作家와評論家

文学과哲学 李雲谷

人格尊重批評을待望…李泰俊
哲學的作品을企待…申南澈
作家評家는有機的…李箕永
作家와評家의差…朴英熙

라디오音樂批判 金管

爆笑放談座談會

…出席人士… 車相瓚 秋岡 申鼎言 本社側二人

九月의詩歌

西天의月…金珖燮
金剛斷章…玄仁圭
밤風景…盧子泳
空虛…광섭
茶房…金光均

隨筆

無功德 李殷相
車中落書 李一
私語 白信愛
가을風景 李孝石

故土山河에感激 徐貞玉

나서廿四年만에도라온徐貞玉孃이본朝鮮의印象

그庭園·그住宅風景

生物學者 李甲洙氏庭園風景
音樂家 桂貞植氏의庭園
語學者 崔鉉培氏의住宅
醫博 吳漢泳氏의庭園
한글學者 李克魯氏의庭園
史學家 李瑄根氏의家庭

近代建築藝術 洪胤植

고리키-의藝術 高一望

來訪하는音樂家

스키파·딸몬테·콜로·칼사스·티보

男女演劇俳優二十名 寫眞帖(附年齡原産地) 趣味·讀書傾向等 (諸査記)

스켓치 都會의一日 徐光霽
短篇小說 無性格者 崔明翊
中篇小說 夜宿 姜鷺鄕
戲曲 初戀記 李曙鄕
探偵小說 寶石 故金裕貞
怪奇小說 狂想詩人 金來成
長篇小說 川邊風景 朴泰遠
長篇小說 無風地帶 咸大勳

中部版

오는六日은愛國日
國威宣揚을祈願
學校를中心으로家庭도動員
京畿道管內에서一齊히

경기도에서는 오는륙일 제일회애국일(愛國日)에 다음과가튼 여러가지행사(行事)를거행하야도내초중등학교의 아동생도를비롯하야 관내주민일반에게 애국사상을 철저히인식식히기로되엿다

▲경성에서는 륙일오전 일곱시부내공사립초중등학교 직원약일천륙백여명이 조선신궁에참배하야 국위선양(國威宣揚)을 기원할터로 신궁광장에서 감자(甘蔗)경기도지사의 시국에편한훈시가 잇슬터이며 교직원은 이것이끗나는대로 곳자기학교에 돌어가서 다음행사를하기로되엿다

一、국기게양
二、국가봉창
三、국민정신작흥에관한조서봉독
四、시국에관한강화
강사는 학교장 재향군인기타관공서의 적당한자를선정한
五、동방요배(황군무운장구기원)

▲학교에서 행사가끗난후에 경성부내에서는 초중등학교오년이상아동 약이만명이 오전중에 중등학교생도전부 약이만명이 오후에 조선신궁을 참배

▲도내 초、중등학교직원 생도아동이 일체가되야 거금헌납하기로된 고사기관총은 애국일당일에 헌납위원이 조선군사령부애국부에 출두하야이를헌납

▲경기도관내 경성이외 각처의관공사립중초등학교에서도 아메와가튼 학교행사를거행하고 신사(神社)신사(神祠)를 봉사하는곳에는 식후각각참배

▲전기 학교행사는 생도아동의부형자매는 물론이고 일반지방유지를 참가케하야 다만학교행사에 끗치게하지안코 전국민적애국일이되도록 하거로되엿다

金浦在留支那人 單一人만未歸

【金浦】부지사변이발발한이후로 김포지방에 거류하는 지나인도 속속철귀하는 모양이드니 현재는 전부철귀하고 오직조선인이경영하는 로리집에 고용하는지나인 한사람만이 머잇슬뿐이라고하는데 그는조선을 떠날생각이업는모양이라고한다

商圈競爭의餘波로
埠頭勞賃에影響?
仁川客主組合과絕緣한勤業所의對立으로
今後에올重大한問題

【仁川】곡항인천에잇서서 객주조합과 근업소의분리문제는 가장중대하야 십만부민의주목을잇끌고잇는바 마침내 객주조합에서는 일일로부터 분리를실시하고잇서 근업소측에서 전원타협일일에 총회를열고 객주업(客主業)과동일한 위탁업을하기로결의하야 방금쌍방은 상권쟁탈과구전경쟁에 공고한대책을강구중에잇다는대 이로인하야파급되는영향이 인천부두로동자의 로임(勞賃)에도 파급되지안흘까하야 식자간에서는 가장우려가되어잇다

摩擦이激化되면
一方은解體方針
埠頭人夫組合을組織統制
仁川商工會議所渡邊理事談

이에대한대책을 인천상공회의소에뭇건대 다음과가튼 방침이잇다한다 곡항으로서 가장중요한지위에잇는 인천으로서 물론중대한문제인줄은알고잇스나 아직상공회의소로는간섭치안코 쌍방자신이해결하기를바라고잇슬뿐이나 만일당업자자신이 해결치못할때에는간섭지안흘수업습니다 간섭을한다면물론 두단체중에서 필요치안타고하는단체를업새이도록할방침밧게는업습니다 현재에도곡주는이중의구전을내인다는 불평이잇스니까 연안무역진흥(沿岸貿易振興)책으로 필연의사실일것입니다 쌍방의상권과 구전경쟁이심하야 부두로동자들의로임(勞賃)에까지 파급되면 어찌하겟느냐고요? 물론부두로임(勞賃)통제를하게될것입니다 따라서부두인부조합을조직하야 이를방지할수밧게는업는데이나 시절이시절이니만큼 보편하는것이 조치안흘까합니다 한마디엿

今年은大豐豫想 江華名產無種柿

【江華】「강화의감」은 한국시대부터 명물이 엇든것으로 강화군의 특산물적상 가장 중요시하엿든것이며 도세산용에 잇서도 다름께반것쥬는 결여 성지 생산량을 본다면 매년평균이십삼만첩으로(一帖은百個로 算出함)그가격이 대략구만원이엇다 전일 경기도지사도 실지답사한후 이사업이 매우유망하다고칭찬한일도잇섯다 명년에는 감나무오만본가량을 강화군농회에서 각농가에 분배하는한편 고염(君遷子)나무를 각농가에 배급하야 가지고 최소한도 한농가에 감으로 삼십원내외의 수입을 목표로하리라는바 이것이 실현되는 날에는 적어도 감으로생산되는 돈이 매년이십만원은 어들수잇스리라한다 그런데금년에는 대풍을예상하고잇다

洪川郡의國防獻金

【洪川】지난팔월말일까지 접수된 홍천군의 국방헌금과황군위문금은다음과갓다 (第三回發表)

北方面職員一同一圓二十三錢 洪川郡職員一同十六圓七十六錢 北方公普校一圓五十六錢 藥井八百吉外一人 尹元培外百九十五名 九十一圓三錢 北方面長慰問金二圓二十三錢 斗村面長一圓五十六錢 洪川面長五圓五十錢 愛髮美容院一同二圓三十錢 美髮院四圓六十四錢 鐵原劉三圓 洪川面長五圓 又三十八圓二十錢 寒溪簡易學校四圓三十九錢 南面長七十二圓五十錢 乃村面長三百十五圓三十四錢 各公普校學校職員生徒一同 二十八圓三十二錢 東面長二圓六十四錢 斗村一圓六十四錢 洪川小學校一圓十錢 南面長六十圓(以上)

時間代支拂遷延으로
妓生配給을拒絕
仁川券番이各料理店에挑戰
花柳界不景氣의反映

【仁川】술과여자는 서로떠나지못할바로되엿는현세에 인천각료리점에서는 기생을부를수업다는 기현상이되여잇다 이제그내용을듯건대 지나사변발발이후에 각료정은 휴업상태이라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지난일일은 료리점과권반간에 시간대의계산일임에도 불고하고 인천조선인각료리점에서는 팔월말수금이 전연되지아니하야 시간대를지불치못하게되엿슴으로 정주들은 권번에대하야 지불치못한시간대에대하야는 개점당시에권번에입치하얏든 증거금으로 삭제하야달나하얏스나 이를불응함으로 그러면 조합장과조합에서널료리대로 상쇠식히자 하는요구까지 하엿스나 이것까지 불응하고 맛참내 각료리점에서는기생의배급을 거절하야 맛친내 손님은 여자업는술을마시여야할 형편이라는 황금만능의 홍등가(紅燈街)가 아니고는잇는자로 하여금 쓰디쓴웃음을참지못하는 인천의화제꺼리가되여잇다한다

地方人事

▲深川博信(前殖銀鐵原支店長代理)咸興支店長代理로 榮轉人事次 本報鐵原支局來訪
▲大橋一雄(殖銀鐵原支店長代理)新任人事次 本報鐵原支局來訪
▲沈元燮氏(江華金組書記)新任人事次本報江華支局에 今二日來訪
▲崔東秀氏(세부란스病院小兒科副科長)江華摩尼山 探險을 마치고傳燈寺에休養中一日歸京

國防獻金遝至
江華郡民의獻金
날이갈수록增加

【江華】강화군내서도 국방헌금열은 백열화하야 날이 거듭할사록 더욱맹렬화하는중으로 과연 일반시국인식은 관계당국자들로하야금 눈물지게하는바 일반부녀층에서는 지난이일부터총출동하야 향군에게보내일 위문품운동에 매진코잇는바 금이일까지의 헌금단의 방명은다음과갓다

百五十圓金化春 二十圓飮食店組合 十圓李鍾根 五圓消防組生一同 十圓李忠鉉 五圓積山宮市 三圓申命均 十圓崔康俊 十圓村上京次郎 十五圓宇田嘉市 二十五圓王寅顯 百圓金錫根 二十圓黃紹蘷 五圓李泰鉉 五圓金敎淳 三十八圓五十錢消防組員一同 十圓李壽東 十一圓金炳益外二十一名 三圓佛恩面靑年團 五十二圓江華队代表者金錫厚外十名 四圓式文淳基 孫永錫 李明鳳 四圓式文淳基、孫永錫 李明奎 朴春根 二圓李基燮 八十圓崔永熹 六十四圓姜在泓 四十圓郭城鉉 十六圓張雲煥 八圓韓光玉 八圓全延淳 二十圓具致書 四圓權玉蓮 四圓呂江寅夫 八十圓朴寅燮 十六圓李鍾秀 四圓式全義善 金益成 李永秀 洪濟殷 申東徹 洪在元 金敦植 金應植 韓基錫 二圓四十錢韓仁錫 四圓式韓英敎 韓明敎 洪鍾燦 李光承 三圓二十錢金益富 一圓四十錢式金蘭植 李成年 李根榮 陳德初 四圓洪鍾萬 三圓二十錢張地秀 四圓金炳淑 一圓四十錢式黃鍾龍 基金永周 黃碩民 韓義敎 李來純 羅石順 四圓式羅 三圓二十錢式金基洙 金守業 金永憲 金永植 李星男 韓德良 一圓四十錢式黃京出 許石基 韓東洙 二十四圓黃正熙 十二圓金益顯 八圓黃宅熙 四圓式洪鍾桓 崔相植 黃鍾周 黃應周 黃鍾周 三圓二十錢式安一成 朴宗景 一圓四十錢式崔宣子 崔宣萬 柳昌烈 黃德周 朴福淳 崔錫鏞 李敬承 洪在禹 四圓高鵾敎 一圓四十錢式高海熙 李華年 四圓式李京敎 宋泰和 三圓二十錢宋泰燮 四圓高謹熙 三圓二十錢高相能 四圓高泰熙 二圓四十錢高相奭 三圓二十錢式高正熙 高千熙 一圓四十錢文鉉玉 四圓沈根澤 三圓二十錢閔允植 沈宣仁 閔銀植 一圓四十錢金正敎 四圓式沈能八 閔根植 沈相燦 三圓二十錢鄭寅銖 二圓四十錢式姜成龍 沈祐澤 四圓式李相淵 李允熙 尹澤 尹殷相 尹均 黃祐貞 李圭徹 奉文成 三圓二十錢式李圭昌 安表慶 李相喆 韓寅洙 二圓四十錢式李相德 黃祐亨 李遠榮 四圓李相達 三圓二十錢金景凡 二圓四十錢式李皇順 李亨植 四圓式李承禧 申永澈 三圓二十錢式具德祖 林源祚 安長秀 宋明錫 成德昌 二圓四十錢式劉宅奎 安秀敏 黃三秉 四圓黃永憲 三圓二十錢式徐鍾燮 徐不顯 四圓式黃瑄 李鍾五 三圓二十錢式金東燮 咸洙洪 四圓式咸洙興 李隆應 三圓二十錢韓氏 二圓四十錢崔秉男 四圓式全東殷 咸洙憲 韓東洙 徐鍾灝 徐鍾鳳 三圓二十錢黃永祿

金浦서도國防獻金

【金浦】김포 하성공립보통학교(霞城公立普通學校)에서는 지난 이십이일에 면내중견청년강습회를개최하고 시국에대한 강화가잇섯든바 그강화를드른 여러청년들은 현금오십원을 거출하야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엿다 하며 음내농업실습학교(農業實習學校)이십사명의 생도들도 자취절약(自炊節約)을 국계하자는 동시에 상십일원구십사전을 거출하야 국방헌금으로 기탁하엿다한다

【金浦】부지사변의 중대성에감하야 김포군청에서는 소속관공리의 봉급백분일을 거출하야 국방금으로 헌납하기로 되엿든바 다시여러직원의 타합한결과 팔월봉급에서 백분의이식내여일백팔십오원팔십구전을 수합한후 국방헌금에 수속을취하엿다한다

金庫工場假店員
契約金詐取行脚
仁川署에서嚴探中

【仁川】멀정한 가점원(假店員)이 되야 약정을 빙자하고 전조선각지에 사기행각한 사기사 ─ 동경부 황천구 일모리(東京府荒川區日暮里)오정목 관내(宮內) 금고본점대표자 광상국송(廣森國松)이라고 자칭하는자가 인천부 경정(仁川府京町)림룡익(林龍益)을 방문하고 인천특약점을하라고 권유한후 계약금으로 이십원을 령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얏스나 계약한칠월오일부터 거금이개월에 이르기까지 물품을 보내지아니하므로 할수업시 본점에 조회하얏든결과 의외에도 본점과는전연관계가업다는통지가왓슴으로 고발을하얏다는데 그외에도 사리원(沙里院)경성(京城)등지에서 계약한서류가 적지안흠으로 전파해액이전부사오천원에달한다한다

金浦陽谷靑年團解體

【金浦】김포군양곡시(金浦郡陽谷市)에잇는 양곡청년단(陽谷靑年團)은 조직된지 오래려사를가지고잇서 양곡청년들의 보금자리와가튼 기관이엿는데 지난팔월중에 경찰당국으로부터 해산명령을밧고 부득이 팔월이십일에 해체하고마럿다

換節期의"써-비스"
府民에無料注射
赤痢와腸窒扶斯의防疫陣
府、道兩衛生試驗室에서

서늘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서 여름철로부터 가을철로 밧귀는 때이다 이때에 음식을 부주의하거나 잠잘때에 배를 차게하거나하면 이질(赤痢)이나 염병(腸窒扶斯)에 걸리는 우려가 잇는주 일반부민들은 특별히 주의해야할일이지마는 경성부위생시험실과 경기도위생시험실에서는 무료로 예방주사를주고잇는터이므로 모두 예방주사를 마저두는것이 가장 안전하리라한다

通行人과트럭衝突 京仁產業道路에서

【仁川】지난이일오후팔시삼십분경 인천부 대화정(仁川府大和町)경인산업도로와 경인국도와의 상각지점에서 경인(京仁)트럭경성부남대문통(京城府南大門通)오정목일번지 정창근(鄭昌根)(二九)이가 운전하고 경성으로 향하다가 전기지점에서 주명기(朱命基)경미소 인부 창영정(昌榮町) 홍광운(洪光雲)(三一)과 충돌하야 피해자는 방금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長篇小說=
花冠 【36】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세화삼 (二十)

받자가잇기는하다。 그러나 동옥은 정히를 보아방으로는 떠나지는 못하엿다。 재하가 드러올가바 정히의방으로 가서 정히와 가치 자고 여칠 첫차를 타기로하엿다。

재하는 동옥이가 모든것을 시기상조라고 해둔재 갑작이 떠나버림에 여간 당황해하지 안는다。 역시 동옥의 가방을 다른사람에게 맛기지 안코 자기가 들고 나오기는하나 여편뻐이의존재에 불과할뿐 여럿이 잇는데서 말한마디라도 재다 하고시픈것은 꺼낼수가 업다。

김장두도 우연이겟지만、바다로 나오다가 정거장으로 드러오든 동옥을 만낫다。 동옥의채림과 재하가 든 가방을 보고 눈이 둥그래지더니

「아、벌서 가십니까?」

뭇는다。

「네」

햇슬뿐 안녕히 게시란 말도동옥은 하지 안는다。 장두는 잡간 어쩔줄을 모르더니 잠작고 획 돌아서 도로 거리쪽으로거이 뛰여서 가는것이다。

동옥은 술그머니 겁이 낫다 그러나 벨것이 아니엿다。 차가 떠날림시에 김장두가 헐덕거리고 나타난것은 사이다 세병을 사서 묵거 들고왓다。

「가다 목마르면 마시유」

모다 웃엇다。 동옥도 웃으며 바닷다。 배일현이만 마지못해나오긴햇스나 똥ㅡ해 섯슬뿐이다

차가 떠난다음、제자리로 와안저서 동옥은 생각해보앗다。

「내가 배씨한테 뭘 잘못 뵈ㅅ나? 몸에 빼진건 실수지 그걸 추태니 뭐니할게 뭔가? 밤중에 재하와 이야기한것? 오! 그인 첨부터 보진 안루 우리가 추한 행동이나 잇는줄 오해한게 아닌가? 아이! 그러타면 날 얼마나 더럽게 봣슬가? 그러케 알길래 추태란말을 함부로 써서 날 모욕을 준것이 아닌가?」

동옥은 발이동동 굴려진다。 다시 송전으로 달려가 그것만은 변명하고십다。

그러나 한정거장 두정거장 지낙스록 머리는 좀냉정해진다。

「배일현이가 오해하기루? 그가 내게 뭐길래? 으레 그렇스러니 하구 보지도못한걸 막 추태니 뭐니…… 그건 저이야 흔한사람 친구한테 무슨 무례야? 제까짓자식이 돈 좀 맛스면 제일인가? 그런거아니꼽더라……」

하게꿈 되엿다。

차가 안변(安邊)에 다다를때에야 김장두가 갓다준 사이다가 생각낫다。 돌어보니 쓸데업시 무겁다。 아메안촌 원산까지 바로간다는 아이들에게 주어버리고 안변서 나리엇다。 남행차는차칸마다 만원이다。 아모데로 나올라서 억지로빼기고 드려갓다。 안즐데는커녕 가방을 노흘자리도 업다。 뒤에서는 나가쟈고만 미는 바람에 한차칸은그냥 지나서 그압차칸으로 드러왓다。 여기도 분비기는 마찬가지다。 두어자리나 지낫슬가한데 누가

「이차로 가십니까?」

하고 안젓던 남자 하나가 일어나는것이다。

「아유……」

동옥은 가방을 노앗다。 반인철이엿다。 그는 선뜻 자리를 나서며 동옥의 가방을 집더니룸어보지도 안코 시렁에 언저놋는다。

「그런데 어디서 타섯서요?」

「전 어제 송전을 떠나서 원산 좀 갓더랫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정…… 정옥씨시던가? 서울로 가십니까?」

「……」

동옥은 잠작고 딴데를 본다 이름도 제대로 기억해주지 안은 사나이、자기만이 『반인철』을뚝뚝히 기억한것이 분해진다 또 어제 한번도 돌아다보지안코 무심히 드려가버리던것이이처지지 안는다。

「정옥씨 안즈세요」

인철은 동옥을 정옥이라 부르기에 더 의심도 갓지안는다

「실예요 전 아메 자리 잇나가볼레예요」

「웬 자리가 잇슬라구요? 여기안즈시래두……」

하여도 동옥은

「괜찬어요 가방 내려주세요」

하고 새침한다。

銀粒 十寶丹 더운때 扇風機 틀지말고 몬저 十寶丹! 10전

ホーロー看板 鑄物ホーロー 寸法通知次第見積書直送 永登浦 極光工業 電話(長)五一番

말더듬이 重難한訥言도全治함 矯正案內書無料送呈 京城府梨花町二〇四ノ三 訥言專門矯正院

失印 本人의白色角圓形印章을八月廿九日에盜失하엿기玆以後使用은無效이기玆에廣告함 延白郡石山面文昌里 洪淳甫

朝報案內

鄭英子어데갓니 二日午前十時出家한七歲斷髮女兒 옷은白色、빈머리다 사진자주시는분께薄謝進呈 新堂町 泰興古物商 鄭鎭泰

外務 員入用 當市內居住者二十二三才位迄 保證人ヲ要ス 黃金町(中央館前)三國商會

掛時計日賦販賣 掛時計日賦販賣員二十五歲ヨリ四十五歲迄ノ方採用ス、保證金百圓及ビ保證人二人ヲ要ス履歷書携帶本人來談アレ、面談時間午後一時ヨリ三時迄 京城本町 株式會社 村木時計店 電話本局四七一

中等 學校女子體操敎員(普通學校)을採用코저하오니有意하신분은下記所로至急自筆履歷書를持參面談要望 京城府安國町三七

支部 一府一支部長募集 高尙한文化事業이며收入相當함 希望者는規定書請求事 京城府樂園町一〇四番地 新講習코ー드販賣會本部 福東洋行

연지 白粉이업서도 어여뿐頭髮이야말로 女性이가진 훌륭한 魅力입니다

金鶴香油

株式會社 野村商店

商標 千 고초가루 都賣 金山府本町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局一六二番 一三八二番 振替金山一五三五番 時價表請求하시면送呈하겟습니다

皮膚 チャージ 차ー지 ◎顏面手足거츠름指間무좀股間습증 여드름、버짐、陰囊濕疹、무좀毒蟲、蚊蚊비대의害의完全治療는チャージ……더럽지안코압호지안코深部에滲透治療 ◎근질근질한皮膚病에꼭한병만쓰면 영낙업시完治됩니다 定價 卅錢、五十錢、一圓 二圓、三圓、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京城外國語學院 夜間生徒募集 ▲英語數學科 ▲中語科速成班 ▲開學九月六日 ▲京城府授恩町 高等各學年程度 學則要三錢切手 晝間部開學中 電光二五五五

女性 九月號發賣中 定價二十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

アメーバ赤痢 아메바 特効劑 腸內防腐止瀉劑 エンテロ・ヴイオフオルム 엔테로 비오포름

整腸、防腐、止瀉作用卓越한 비오포름「치바」에사파민을 配合하고 腸內에잇서서 乳化를 促進하야 腸管內에서均等히 作用해서 藥效를一層增大하는 것입니다 一日二乃至三錠의 分服에依하야 確實迅速히 効力을 發揮함 無味、無臭해서 副作用이업슴

아메바赤痢의治療及豫防에特効的作用이잇合 其他急性慢性胃腸加答兒、腸結核의下痢、各種赤痢、疫痢、傳染性及寄生性腸疾患等의適劑로서世界各國의治療界에實用됨

定價 二十錠入 金二圓七十五錢 百錠入 金十一圓二十錢 文獻及說明書左記ヨり郵呈 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ヂング 瑞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日滿學術部 日本及滿洲國總代理店 發賣元 大阪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各地有名藥店百貨店藥品部ニ有リ)

12—37